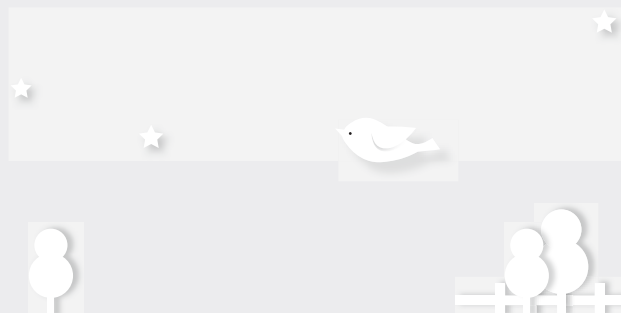




정답과 해설

◆ 본문	02
◆ 부록	25



중등 **문법**



정답과 해설

1 언어

01 언어의 본질

본문 011쪽

개·념·바·로·체·크

- 1 (1) ○ (2) ○ (3) × 2 (1) 뜻(의미) (2) 약속 3 (1) 역사성
(2) 자의성 (3) 규칙성 4 (1) 사회성 (2) 창조성

기·본·다·지·기

- 1 ② 2 ③ 3 ⑤ 4 ⑤

- 1 언어의 자의성이란 말소리와 뜻이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 자의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은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도 사회나 민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

오답 풀이 ①은 자의성의 개념이며, ③~⑤는 말소리와 뜻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의성의 사례이다.

- 2 언어의 사회성은 모든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은 언어의 역사성, ②는 언어의 규칙성, ④는 언어의 창조성, ⑤는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다.

- 3 ⑤는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말 중 하나가 널리 쓰여 나머지 하나가 사라진 것이므로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예이다.

오답 풀이 ①은 언어의 자의성, ②는 언어의 사회성, ③은 언어의 규칙성, ④는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예이다.

- 4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를 결합하여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

실·력·쑈·기

본문 012~013쪽

- 01 ① 02 ② 03 ② 04 ⑤ 05 ④ 06 ④
07 ⑤ 08 ② 09 ③ 10 ① 11 ③

- 01 언어는 항상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에 따라 생성, 변화, 소멸한다.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역사성이라 한다.

오답 풀이 ②는 언어의 자의성, ③은 언어의 사회성, ④는 언어의 규칙성, ⑤는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설명이다.

- 02 말소리와 의미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고,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설명이다.

- 03 언어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생성, 변화, 소멸하는데 이를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보기>는 그중에서 시간이 흐르며 의미가 변화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 예이다.

- 04 언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⑤의 '형은 내일 학교를 갔었다.'에서 '내일'은 미래를 나타내므로 '형은 내일 학교에 가겠다/갈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풀이 ①은 목적어와 서술어가 의미상 호응되지 않는다.

②는 꾸며 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뒤에 놓여 있다.

③은 사동 표현의 주체가 맞지 않는다.

④는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

- 05 <보기>는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의 '나는 공원에 간다.'라는 문장을 활용하여 '나는 놀이터에 간다.'라는 문장을 새롭게 만든 것은 창조성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은 역사성, ②는 자의성, ③은 사회성, ⑤는 규칙성을 말한 것이다.

- 06 ④는 자의성에 해당하는 예이다. 창조성은 인간이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를 가지고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 07 ⑤는 기존에 알던 문장들을 이용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낸 것으로, 언어의 창조성을 바르게 이해한 예이다.

오답 풀이 ① 언어는 자의성을 가지므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나라마다 다르다.

② 언어의 역사성 중 단어의 변화 양상을 잘못 이해한 예로, '되' 대신 '산'이 널리 쓰이게 되며 '되'라는 말이 사라진 것이다.

③ 언어의 사회성을 어긴 것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단어를 바꿀 수 없다.

④ 언어의 규칙성을 어긴 것으로,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말해야 한다.

- 08 <보기>는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이다. ②는 단어 사용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언어의 역사성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은 없던 말이 생겨난 예이다. ③은 형식(음성)이 바뀐 예이다. ④는 한쪽 말이 사라진 예이다. ⑤는 뜻이 바뀐 예이다.

- 09 피터는 '어제'와 '갈 거야'에서 시간 표현을 잘못 사용하고, '나를'에서 주격 조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 10 말소리와 뜻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관계이며, '펜'이라는 말 대신 '프린들'이라는 단어를 쓰자고 맹세한 것은 언어의 사회성을 무시한 것이다.

- 11 '어리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변한 것을, '밤'은 동음이의어로 하나의 형식에 여러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사랑'은 언어권에 따라 소리가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언어의 형식과 내용이 필연적인 일대일의 관계를 갖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퀴·즈 로 마무리

본문 014쪽

[B]

2 음운

01 음운 체계 ①

본문 017쪽

개·념·바·로·체·크

- 1 (1) ○ (2) × 2 (1) 단모음 (2) 최고점 (3) 입술 모양 3 (1) ㅅ, ㅊ, ㅌ, ㄷ, ㄴ (2) ㅈ, ㅊ, ㅌ, ㄷ, ㄴ, ㄹ 4 (1) 이중 모음 (2) 단모음 (3) 단모음 (4) 이중 모음 5 (1) ㅈ (2) ㅊ (3) ㅌ

기 본 다지기

- 1 ② 2 ⑤ 3 ⑤ 4 ④

-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우리말의 음운은 크게 자음과 모음으로 나뉜다. ②에서 ‘공’이라는 단어는 ‘ㄱ’, ‘ㅇ’, ‘ㅇ’이라는 3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 우리말의 모음은 소리를 낼 때 공기가 목 안이나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며, 단모음 10개와 이중 모음 11개로 나뉜다.
오답 풀이 ① 모음은 단모음 10개, 이중 모음 11개로 이루어져 있다.
 ② ‘아’, ‘오’ 등과 같이 모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있다.
 ③ 단모음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이,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한다.
 ④ 모음은 소리마디의 경계가 쉽게 분리되는 분절 음운에 속한다.
- 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와 같이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과 ‘ㅗ, ㅛ, ㅜ, ㅠ,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와 같이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달라지는 이중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 단모음은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그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 ㉠에는 ‘ㅏ’, ㉡에는 ‘ㅓ’, ㉢에는 ‘ㅗ’, ㉣에는 ‘ㅓ’가 들어가야 한다. ㉤의 ‘ㅓ’는 이중 모음이므로 단모음 체계표에 포함될 수 없다.

01 음운 체계 ②

본문 019쪽

개·념·바·로·체·크

- 1 (1) 소리, 센입천장소리 (2) 목청, 안울림소리 (3) 파찰음 2 (1) × (2) ○ (3) ○ 3 (1) 목청소리 (2) 잇몸소리 (3) 어린입천장소리 (4) 입술소리 (5) 센입천장소리 4 (1) ㄱ, ㄷ, ㅂ (2) ㅅ, ㅆ (3) ㄹ

기 본 다지기

- 1 ④ 2 ② 3 ③ 4 ②

- 자음은 목 안이나 입안의 어떤 자리에서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통로가 좁아져서 장애를 입고 만들어지는 소리로, 발음하는 위치나 방법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눌 수 있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나누는 것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 자음의 명칭은 ‘소리가 나는 위치’에 ‘소리’라는 말을 덧붙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의 입술에서는 입술소리인 ‘ㅌ, ㅍ, ㅍ’, ㉡의 윗잇몸과 혀끝에서는 잇몸소리인 ‘ㄴ, ㄷ, ㅌ, ㅌ, ㄷ, ㅌ, ㅌ’, ㉢의 센입천장과 혀바닥에서는 센입천장소리인 ‘ㄱ, ㅈ, ㅊ’, ㉣의 어린입천장과 혀바닥에서는 어린입천장소리인 ‘ㄱ, ㅈ, ㅊ, ㅇ’, ㉤에서는 목청소리인 ‘ㅎ’이 소리 난다.
- 자음 중 목청을 울리며 부드럽게 나는 소리인 울림소리에는 ‘ㄴ, ㄹ, ㅁ, ㅇ’이 있다. ㉢ ‘미술’에서는 울림소리 중 ‘ㅁ’이 사용되었다.
- 자음은 발음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어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나뉜다. 또한 발음 방법에 따라서는 안울림소리와 울림소리로 나눌 수 있으며, 안울림소리는 다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나눌 수 있다. 울림소리는 비음과 유음이 있다.

영 지식 더하기

- 예사소리 입안의 기압 및 발음 기관의 긴장도가 낮아 약하게 터져 나오는 소리 → ㄱ, ㄷ, ㅂ, ㅅ, ㅈ, ㅊ
- 된소리 목구멍의 근육을 긴장하거나 성대 사이의 틈을 좁혀 내는 소리 → ㄱ, ㄷ, ㅂ, ㅅ, ㅈ, ㅊ
- 거센소리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소리 → ㅋ, ㅌ, ㅍ, ㅊ

02 음운의 변동 ①

본문 021쪽

개·념·바·로·체·크

- 1 (1) 변동 (2) 음절의 끝소리 규칙 (3) 된소리되기 2 (1) ○ (2) ○ (3) × 3 ㄱ, ㄴ, ㄷ, ㄹ, ㅁ, ㅂ, ㅇ 4 (1) 음절의 끝소리 [ㄷ] (2) 음절의 끝소리 [ㅂ] (3) 음절의 끝소리 [ㄱ] 5 (1) 히을 (2) 국밥 (3) 밥꼬 (4) 삼파

기 본 다지기

- 1 ③ 2 ② 3 ① 4 ⑤

- 1 음운의 변동은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말소리가 변하는 현상으로, 발음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하거나 또는 표현의 강화를 위해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음운의 변동은 음운과 음운이 만나 소리가 변하는 현상이다.

② 음운의 축약과 탈락 등은 표기에 반영하기도 하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등은 발음에 관련된 것일 뿐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④ 두 음운이 만나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음운의 탈락이라고 한다.

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7개의 자음만이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말한다.

- 2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이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고, 그 이외의 받침은 7개의 자음 중에서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②에서 ‘방[방]’은 ‘ㅇ’이 그대로 발음되며 소리가 바뀌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맛[맛]’은 ‘ㅅ → ㄷ’으로 바뀐다.

③ ‘뱃[뱃]’은 ‘ㅍ → ㄱ’으로 바뀐다.

④ ‘숲[숲]’은 ‘ㅍ → ㅂ’으로 바뀐다.

⑤ ‘팔[팔]’은 ‘ㅌ → ㄷ’으로 바뀐다.

- 3 겹받침의 경우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각 대표음으로 발음되며, 겹받침 뒤에 이어지는 소리가 모음이고 문법적 의미를 지닐 때에는 앞 음절의 끝소리 중 뒤의 자음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된다. ①에서 ‘따다’의 ‘ㄷ’은 ‘ㄱ’ 앞에서만 ‘ㄹ’로 발음되고,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둘째 자음인 ‘ㄱ’으로 발음되어야 하므로 [막따]라고 읽어야 한다.

- 4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⑤의 호박꽃[호:박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나타낼 뿐, 된소리되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먹고[먹꼬], ③ 밥도[밥또]는 (1)의 예이고, ① 감다[감따], ④ 신다[신타]는 (2)의 예이다.

- 1 제시된 단어들은 자음과 자음이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한쪽이나 양쪽 모두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자음 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굽는[굶:는]’, ‘식민지[싱민지]’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 현상, ‘난로[날:로]’, ‘대관령[대:괵령]’은 비음인 ‘ㄴ’이 유음의 영향으로 유음인 ‘ㄹ’로 소리 나는 유음화 현상이다.

오답 풀이 ① 음운의 축약에 대한 설명이다.

②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③ 음운의 첨가에 대한 설명이다.

④ 된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다.

- 2 ① 궁리[궁니], ③ 뒷문[뒀:문], ④ 급류[급뉴], ⑤ 식물[싱물]은 두 개의 자음이 만나 한쪽이나 양쪽 모두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자음 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② 동네[동:네]는 표기와 발음이 같으며 자음 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 3 <보기>는 자음 동화 중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를 나타낸 것이다. ④의 전라도[절라도]는 ‘ㄴ’과 ‘ㄹ’이 만나 앞의 ‘ㄴ’이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입는[임는], ② 석류[성뉴], ③ 속리산[송니산], ⑤ 무령왕릉[무:령왕능]은 모두 자음 동화 중 비음화 현상에 해당한다.

- 4 <보기>의 내용은 음절의 끝소리에서 잇몸소리인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 센입천장소리인 ‘ㅈ, ㅊ’으로 발음된다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②에서 ‘별이[벼치]’는 ‘ㅌ’이 모음 ‘ㅣ’를 만나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 현상에 해당하는 예이다.

오답 풀이 ① 발에[바테], ③ 꽃이[꼬치], ④ 밤이[바미], ⑤ 돌았어[도다씨]는 모두 앞 음절의 받침이 뒤 음절로 연음되어 발음된 것으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02 음운의 변동 2

본문 023쪽

개·넙·바·로·체·크

- 1 (1) 자음 동화 (2) 비음, ㄹ (3) 구개음화, ㅌ 2 (1) ○ (2) × (3) ○ 3 (1) 궁민 (2) 암날 (3) 놀리 (4) 대:통녕 4 (1) ㉠ (2) ㉡ (3) ㉢ 5 (1) 해도지 (2) 피부치 (3) 구치다

기본 다지기

- 1 ⑤ 2 ② 3 ④ 4 ②

02 음운의 변동 3

본문 025쪽

개·넙·바·로·체·크

- 1 (1) 축약 (2) 탈락 (3) 첨가 2 (1) × (2) ○ (3) × 3 (1) ㅎ (2) ㅎ (3) ㅍ (4) ㅎ, ㅌ 4 (1) 자음 축약 (2) 모음 탈락 (3) 자음 탈락 (4) 모음 축약 5 (1) 콩님 (2) 논닐 (3) 신녀성

기본 다지기

- 1 ⑤ 2 ③ 3 ④ 4 ③

- 1 위의 내용은 음운의 변동 중 축약에 대한 설명이다. ㉠에서 '중지[조:지], 중다[조:타], 중구나[조:쿠나]'는 음운의 축약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중은[조:은]'은 음운의 탈락('ㅎ' 탈락) 현상이 일어난 예에 해당한다.
- 2 ③의 '맞추-+-어'에서 'ㄱ + ㄴ'은 'ㄴ'으로 축약되어야 하므로 올바른 축약 형태는 '맞춰'이다.
- 3 ④에서 '답그-+-았다'가 '답갔다'가 되는 과정은 모음 탈락 중 'ㅡ' 탈락에 대한 예에 속한다.
- 오답 풀이** ①~③은 자음 탈락의 각 예이다.
⑤는 모음 탈락(동음 탈락)의 예이다.
- 4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운 변동 현상은 'ㄴ' 첨가 현상이다. ① 담요[담:뇨], ② 연잎[연닙], ④ 색연필[생년필], ⑤ 한여름[한녀름]은 발음할 때 'ㄴ'이 첨가된다. 반면에 ③ 협약[허박]은 'ㅂ'이 뒤의 음절에 연음되어 발음되며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력 쌓기

본문 026~029쪽

01 ②	02 ③	03 ①	04 ①	05 ⑤	06 ④
07 ④	08 ⑤	09 ①	10 ②	11 ②	12 ④
13 ④	14 ⑤	15 ⑤	16 ④	17 ④	18 ⑤
19 ④	20 ②	21 ⑤	22 ②	23 ①	24 ③
25 ①	26 ④	27 ⑤	28 ④	29 ③	30 ③
31 ③					

- 01 (1)의 정답은 ×, (2)의 정답은 ○, (3)의 정답은 ○, (4)의 정답은 ×, (5)의 정답은 ×로, 이 학생은 다섯 문제 중 총 2개(2), (4)의 정답을 바르게 표시하였다.
- 오답 풀이** 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며,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③ 자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없고 모음과 결합해야만 소리를 낼 수 있다.
⑤ '비상'의 음운은 'ㅂ, ㅣ, ㅅ, ㅌ, ㅇ'과 같이 5개이고, '교육'은 'ㄱ, ㅍ, ㅍ, ㅍ'으로 4개이므로 음운 개수는 서로 다르다.
- 02 'ㅣ, ㅐ, ㅑ, ㅕ, ㅗ'는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을 때 소리 나는 전설 모음이고, 'ㅡ, ㅓ, ㅗ, ㅜ, ㅝ'는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을 때 소리 나는 후설 모음이다. 즉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단모음을 분류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의 분류 기준이다.
②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의 분류 기준이다.
④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분류 기준이다.
⑤ 자음과 모음의 분류 기준이다.
- 03 'ㅐ'는 저모음이고 'ㅑ'는 중모음이므로 'ㅐ'와 'ㅑ'를 정확히 구별하여 발음하려면, 'ㅐ'를 소리 낼 때보다 'ㅑ'를 소리 낼 때 입을 좀 더 크게 벌리고 혀의 높이를 좀 더 낮춰 발음해야 한다.

- 04 ①에서 '괴산'의 'ㅇ', 'ㅏ'는 모두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이다.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이중 모음으로, ②는 'ㅑ', ③은 'ㅕ', ④는 'ㅓ', ⑤는 'ㅗ'가 이중 모음에 해당한다.

- 05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것은 후설 모음(ㅡ, ㅣ, ㅗ, ㅜ, ㅝ)이고,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은 모음은 저모음(ㅐ, ㅓ)이다. 두 설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모음은 'ㅓ'이며, ⑤에서 'ㅓ' 모음이 사용되고 있다.

- 06 ④의 '중'에서 'ㅡ'는 고모음으로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높아 입천장에 가까워진다.

오답 풀이 ① 'ㅐ'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이다.

② 'ㅓ'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인 후설 모음이다.

③ 'ㅣ'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평평한 상태에서 소리 나는 평순 모음이다.

⑤ 'ㅗ'는 발음할 때 입이 반쯤 열려서 혀의 높이가 중간인 중모음이다.

- 07 제시된 자료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밤'은 짧게 발음하고, 밤나무의 열매를 뜻하는 '밤'은 길게 발음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해 우리말은 자음이나 모음 외에도 소리의 길이, 즉 모음의 길이를 통해서도 말의 뜻을 구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08 ㉠에 들어가는 자음은 'ㅎ'으로, 마찰음이자 목청소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이다.

② ㉠에 해당하는 자음은 'ㄹ'이다.

③ ㉠은 혀가 딱딱한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지며 나는 소리이다.

④ ㉠은 목청을 울리며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이다.

- 09 'ㅈ'은 센입천장소리, 'ㅍ'은 입술소리, 'ㅅ', 'ㄴ'은 잇몸소리, 'ㄱ'은 여린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목청소리인 'ㅎ'은 위의 단어에 사용되지 않았다.

- 10 안울림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순으로 나뉜다. ②에서 예사소리로 이루어진 '강중강중'보다는 된소리와 거센소리로 이루어진 '깡충깡충'이 보다 센 느낌을 준다.

- 11 목청을 울리며 나는 소리를 울림소리라고 하며, 여기에는 모든 모음과 자음 중 'ㄴ, ㄹ, ㅁ, ㅇ'이 포함된다. ①, ③, ④, ⑤는 모두 울림소리로만 이루어진 단어이지만, ②의 '참새'는 안울림소리인 'ㅈ, ㅊ'도 포함된 단어이다.

- 12 ①의 'ㅁ', ②의 'ㄴ', ③의 'ㅇ', ⑤의 'ㅁ', 'ㅇ'이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나는 비음인 것과 달리, ④의 'ㄹ'은 공기가 혀의 양쪽 옆으로 나가는 유음이다.

13 첫소리는 입술소리로 ‘ㄱ, ㅋ, ㆁ’이고, 가운데소리는 원순 모음으로 ‘ㅜ, ㅠ, ㅡ, ㅝ’이며, 끝소리는 윽림소리 중 비음인 ‘ㄴ, ㄹ, ㅇ’이다. ①~⑤ 중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어는 ④의 ‘뽕’이다.

14 ㉠에서 전설 모음은 1개(ㅜ), ㉡에서 된소리는 2개(ㅛ, ㅠ), ㉢에서 길게 발음할 것은 1개(눈), ㉣에서 윽림소리는 6개(자음: ㄹ, ㅁ, ㄴ / 모음: ㅏ, ㅑ, ㅓ)이다.

15 모음 축약, 음운의 탈락 등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표기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16 ④의 경우 음절의 끝에서 ‘ㅁ’은 [ㅁ]으로, ‘ㅂ, ㅍ’은 [ㅃ]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②, ⑤는 모두 [ㄷ]으로, ③은 모두 [ㄱ]으로 발음된다.

17 ④의 ‘쫄다’는 표준발음법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쫄:따]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②는 [뱌찌], ⑤는 [할따]로 발음해야 하고,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①은 [물꼬], ③은 [음따]로 발음해야 한다.

18 ‘끝장’은 [끝장] → [끝짱]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후,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19 ‘쇠붙이[쇠부치]’는 받침 ‘ㅌ’이 ‘ㅣ’ 모음을 만나 [치]로 발음되는 구개음화 현상에 해당된다.

오답 풀이 ①은 [뱌쌍], ②는 [뱌깨], ③은 [날썰다], ⑤는 [올꼬름]으로 발음되며 모두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20 <보기>는 자음 동화의 비음화 형태 중 하나이다. ②의 ‘백로[백노]’는 <보기>의 형태가 아닌, ‘ㄱ, ㄷ, ㅂ+ㄹ → [ㅇ, ㄴ, ㅁ]+[ㄴ]’으로 발음되는 형태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먹물[명물], ③ 밟는데[밟는다], ④ 달는데[단는다], ⑤ 만머느리[만머느리]

21 ①은 [몽넌], ②는 [변나무], ③은 [동뽕나무], ④는 [자장나무]로 모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데 비해, ⑤의 [할:라돌찌귀]는 ‘ㄴ’이 ‘ㄹ’과 만나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22 ②에서 ‘갈날[갈랴]’은 뒤의 ‘ㄴ’이 앞의 ‘ㄹ’을 닮아 바뀐 순행 동화이자, 바뀐 음운이 인접한 음운과 같은 완전 동화이다.

오답 풀이 ① [실라]로 발음되며, 역행 동화이다.
③ 불완전 동화이다.
④ 순행 동화이다.
⑤ [면니]로 발음되며, 상호 동화이자 완전 동화이다.

23 구개음화란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ㅣ’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ㅜ, ㅠ’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구개음화에 관여하는 모음은 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인 ㉠의 ‘ㅣ’이다.

24 ‘맡이[마지]’, ‘살붙이[살부치]’, ‘굳히다[구치다]’, ‘새벽같이[새

벽까지]’, ‘여닫이문[여다지문]’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총 5개이다.

오답 풀이 ‘꽃이[꼬치]’, ‘달맞이하다[달마지하다]’는 받침이 다음 음절에 이어 나타나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디딤돌[디딤똥]’은 한 형태소 안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젓히다[저치다]’는 자음 축약이 나타난다.

25 자음 축약은 두 자음이 합쳐져 하나의 자음으로 줄어 소리 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의 『운수 좋은 날』에서 ‘좋은[조은]’은 인접한 두 음운이 만나 그중 한 음운이 사라지는 탈락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② ‘부탁해[부타개]’, ③ ‘따뜻했네[따뜨텐네]’, ④ ‘이렇게[이러케]’, ⑤ ‘많던[만턴]’에서는 자음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26 ④의 ‘썰’은 ‘쓰-+-어’에서 모음 ‘ㅡ’가 탈락된 것으로 음운의 축약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되-+-어 → 돼’, ② ‘보이-+-었- → 보였-’, ③ ‘뜨-+-이- → 띄-’, ⑤ ‘가리-+-어- → 가려-’로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현상, 그중에서도 모음 축약 현상이 일어났다.

27 ① ‘딸+ㅅ-’ ② ‘동글+ㅅ-’ ③ ‘열+ㅅ-’ ④ ‘울+ㅅ-’은 결합하면서 공통적으로 ‘ㄹ’이 탈락되었는데, ⑤에서 ‘그었다’는 ‘긋+ㅅ-’에서 ‘ㅅ’이 탈락되었다.

28 ④의 ‘형이 컴퓨터를 조립하고 있다.’는 모음 탈락이 일어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의 ‘고프-+-아’, ⑤의 ‘크-+-어서’에서는 모음 ‘ㅡ’ 탈락이, ②의 ‘사-+-았-’, ③의 ‘서-+-어서’에서는 동음 탈락이 나타난다.

29 <보기>의 ‘눈+요기 → [눈노기]’는 ‘ㄴ’ 첨가 현상에 대한 것으로, ③에서 ‘섬리[섬니]’는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자음 동화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맨입[맨닙]’, ② ‘샅입[샅닙]’, ④ ‘식용유[시공유]’, ⑤ ‘홀이불[훈니불]’은 모두 발음할 때 ‘ㄴ’이 첨가된다.

30 ‘꽃잎 → [꼇잎] → [꼇닙] → [꼇닙]’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자음 동화를, ‘붙-+-이-+-어 → 붙여[부쳐]’에서 음운 축약과 구개음화를 확인할 수 있다. ③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31 ③ ‘신여성[신녀성]’, ‘나뭇잎[나문닙]’은 ‘ㄴ’이 첨가된 사례이고, ‘닫는[단는]’은 자음 동화 현상이 나타난 사례이다. 따라서 음운 변동 현상이 잘못된 것이다.



두부, 오이, 마늘, 사과, 어묵, 마요네즈

본문 030쪽

3 단어

01 단어의 형성 ①

본문 033쪽

개·념·바·로·체·크

- 1 (1) ○ (2) × (3) ○ 2 (1) 형식 (2) 접사 3 (1) ㉠ 그, 사람
㉡ 을, 찾-, -았-, -다 (2) ㉠ 그, 사람, 찾- ㉡ 을, -았-, -다
4 (1) 손등 (2) 햇밤 (3) 걸음 5 (1) 7 (2) 5

기본 다지기

- 1 ④ 2 ④ 3 ④ 4 ⑤

- 1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도 형태소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문장 성분들 간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도 형태소에 포함된다.
- 2 자립성 여부로 형태소를 나누면 '집'과 '매우'는 자립 형태소이고, '이', '크-', '-다'는 의존 형태소이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 여부로 형태소를 나누면 '집', '매우', '크-'는 실질 형태소이고, '이', '-다'는 형식 형태소이다.

오답풀이

형태소를 나누는 방법

단어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보고, 나눈 단어가 말의 뜻을 잃어버리면 멈춘다.

예 집이 매우 크다. → '집', '매우'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로, 더 이상 나누면 그 뜻을 잃어버린다. '이'는 '집'에 붙어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는 형태소이다. '크다'는 실질적인 뜻을 가진 '크-'와 문법적 기능을 하는 '-다'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의 형태소를 나누면 '집 / 이 / 매우 / 크- / -다'가 된다.

- 3 <보기>에서 자립 형태소는 '나', '바다'로 2개이고, 실질 형태소는 '나', '넓-', '바다', '보-'로 4개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비해 그 개수가 적다.

오답풀이 ① <보기>는 '나/는/넓은/바다/를/보았다'로, 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② '는'과 '를'은 자립할 수 있는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로 단어에 해당한다.

③ <보기>는 '나/는/넓-/은/바다/를/보-/았-/다'로, 9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⑤ <보기>에서 의존 형태소는 '는', '넓-', '-은', '를', '보-', '-았-', '-다'로 7개, 형식 형태소는 '는', '-은', '를', '-았-', '-다'로 5개이다.

- 4 ⑤의 '어깨동무'는 '어깨+동무'로 이루어진 단어로, '어깨'와 '동무' 모두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군-+말(접사+어근), ② 지우-+-개(어근+접사), ③ 뜻-+사과(접사+어근), ④ 사냥+-꾼(어근+접사)

01 단어의 형성 ②

본문 035쪽

개·념·바·로·체·크

- 1 (1) ○ (2) ○ (3) ○ (4) × 2 (1) 합성어 (2) 접사 3 (1) 파 (2) 합 (3) 파 (4) 합 4 (1) 검붉다 (2) 고무신 (3) 피땀 5 뜻

기본 다지기

- 1 ③ 2 ④ 3 ④ 4 ①

- 1 ㉡의 '날-'은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오답풀이 ①, ② '나무'와 '하늘'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므로 더 쪼개면 뜻을 알 수 없게 되거나 뜻이 달라진다.

④ '앞뒤'는 어근 '앞'과 어근 '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치솟다'는 접사 '치-'가 어근 '솟-'에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2 '책가방'은 '책을 넣어 다니는 가방'이라는 뜻으로, 어근 '책'이 다른 어근인 '가방'을 수식하는 합성어이다. 나머지는 모두 어근이 대등하게 본래의 뜻을 유지하면서 결합된 합성어이다.

- 3 <보기>의 '벼슬아치'는 어근 '벼슬'에 접미사 '-아치'가 붙은 파생어인 데 반해, ④는 접두사 '헛-'이 어근 '병아리'에 붙은 파생어이다. 나머지는 모두 어근에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이다.

오답풀이 ① 땀-(어근)+-개(접미사)

② 망치(어근)+-질(접미사)

③ 요술(어근)+-쟁이(접미사)

⑤ 욕심(어근)+-꾸러기(접미사)

- 4 '부삽'과 '소나무'는 '불+삽'과 '솔+나무'로 둘 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고, 두 단어 모두 형성 과정에서 'ㄹ'이 탈락하여 형태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부삽'은 '불'이 '삽'을 수식하는 합성어이고, '소나무'는 '솔'이 '나무'를 수식하는 합성어이다.

02 품사 ①

본문 037쪽

개·념·바·로·체·크

- 1 (1) ○ (2) × (3) ○ 2 (1) 체언 (2) 대명사 3 (1) 수사 (2) 명사 (3) 대명사 4 (1) 그대, 그이, 저희 (2) 이것, 어디 5 (1) ㉡ (2) ㉠

기본 다지기

- 1 ② 2 ③ 3 ② 4 ①

- 1 단어는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9가지 품사로 나뉜다.

오답 풀이 ①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로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③ 품사는 형태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어, 관계어, 독립어, 의미에 따라 9품사로 나뉜다.

④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⑤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수식어으로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 2 '책'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도 보편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보통 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책'은 체언이기 때문에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② 체언인 명사는 문장에서 주제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책'은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④ 명사는 불변어로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⑤ '책'은 다른 말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이다.

- 3 ②의 '그'는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말하는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이다.

③ '여기'는 장소를 대신하는 지시 대명사이다.

④ '누구'는 잘 모르는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다.

⑤ '아무'는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다.

- 4 ①의 '한'은 명사 '개'를 수식하고 있는 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② '셋'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다.

③ '열일곱'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다.

④ '둘'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다.

⑤ '첫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이다.

02 품사 2

본문 039쪽

개·념·바·로·체·크

- 1 (1) ○ (2) ○ (3) × (4) ○ 2 (1) 형용사 (2) 활용 3 (1) 달리다, 생각하다 (2) 예쁘다, 빠르다 4 (1) 이, 의, 도 (2) 붙어서 (3) 따뜻한, 포근했다

기 본 다지기

- 1 ⑤ 2 ① 3 ④ 4 ③

- 1 조사는 다른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관계어라 한다.

오답 풀이 ①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놓인다.

② 다른 단어들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관형사나 부사이다.

③ 조사는 다른 말 뒤에 붙어서 쓰이기 때문에 독립적이라 할 수 없다.

④ 조사에는 체언 뒤에 붙어서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도 있다.

- 2 ①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접속 조사이고, ②~⑤는 체언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오답 풀이 ② 목적격 조사, ③ 부사격 조사, ④, ⑤ 주격 조사에 해당한다.

- 3 용언은 부사의 수식은 받을 수 있지만, 관형사의 수식은 받지 않는다.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이고,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이다.

- 4 ③의 '흐른다'는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02 품사 3

본문 041쪽

개·념·바·로·체·크

- 1 (1) × (2) ○ (3) ○ 2 (1) 부사 (2) 독립어 3 (1) 엄청 (2) 저리 (3) 아니 4 (1) 모든, 그 (2) 과연, 무척 5 (1) 부름 (2) 대답 (3) 놀람

기 본 다지기

- 1 ⑤ 2 ④ 3 ⑤ 4 ⑤

- 1 ① '그'는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② '몹시'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지만 부사 뒤에는 '몹시도'와 같이 조사가 붙기도 한다.

오답 풀이 ③ '나는 몹시 그 사람이 좋다.'와 같이 부사는 문장 내에서 비교적 이동이 자유롭지만 관형사는 그렇지 않다.

④ 수식어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2 ④의 '무거운'은 '무겁다'라는 형용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이루어진 관형어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① '새'는 명사 '옷'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② '석'은 명사 '잔'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③ '저'는 명사 '거리'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⑤ '아무'는 명사 '말'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 3 <보기>의 '부디'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의 '분명히' 역시 '그는 다시 올 것이다.'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 풀이

- ① '매우'는 '부지런하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② '아주'는 '헌'이라는 관형사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③ '갑자기'는 '멈추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④ '엄청'은 '빨리'라는 다른 부사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4 ⑤의 '아무리'는 용언 '우겨도'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나머지 밑줄 친 단어의 품사는 모두 감탄사이다.

오답 풀이

- ① '정말'은 어떤 일에 대하여 다짐할 때 쓰는 감탄사이다.
 ② '아'는 기쁘거나 슬플 때, 또는 모르는 것을 깨달을 때 내는 감탄사이다.
 ③ '그래'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감탄이나 가벼운 놀라움을 나타낼 때 쓰는 감탄사이다.
 ④ '여보'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부르는 감탄사이다.

03

어휘의 체계와 양상 ①

본문 043쪽

개·념·바·로·체·크

- 1 (1) ○ (2) ○ (3) × 2 (1) 고유어 (2) 외래어 3 (1) 외래어
 (2) 고유어 (3) 한자어 4 (1) 소망(所望) (2) 각오(覺悟) (3) 의중
 (意中) 5 (1) 감, 진지 (2) 사상, 식구 (3) 빵, 라디오

기 본 다지기

- 1 ⑤ 2 ② 3 ⑤ 4 ②

- 1 우리말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한 것은 단어의 어원 즉, 말이 생겨난 근원에 따른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우리말 어휘의 절반 이상이 한자어이다.
 ② 외래어와 외국어는 모두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외래어는 외국어와 달리 우리말의 일부로 인정된다.
 ③ 고유어는 옛날부터 사용해 온 순수한 우리말이므로 우리 민족 특유의 문화나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다.
 ④ 고유어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자주 쓰이다 보니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다의어가 많다.

- 2 '건물을 고치다.'에서 '고치다'는 '수리(修理)하다'라는 한자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치료하다: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하다.
 ③ 개혁하다: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다.
 ④ 교정하다: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⑤ 수정하다: 바로잡아 고치다.

- 3 '불고기'는 순수한 우리말로 만들어진 고유어이다.

오답 풀이

- ① '버스'는 영어에서 온 외래어이다.
 ② '망토'는 프랑스어에서 온 외래어이다.
 ③ '콩트'는 프랑스어에서 온 외래어이다.
 ④ '넥타이'는 영어에서 온 외래어이다.

- 4 ㉠의 '봄, 새싹, 오빠'는 옛날부터 사용해 온 순수한 우리말인 고유어이고, ㉡의 '호미, 빵, 스키'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쓰이는 외래어이다. ㉢의 '감기, 친구, 편지'는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한자어이다.

03

어휘의 체계와 양상 ②

본문 045쪽

개·념·바·로·체·크

- 1 (1) × (2) ○ (3) × 2 (1) 유행어 (2) 관용어 3 (1) 멜, 추버라 (2) 열폭, 열쌍 4 (1) 성별 (2) 세대 (3) 직업 5 (1) 은어
 (2) 유행어 (3) 관용어 (4) 전문어

기 본 다지기

- 1 ⑤ 2 ⑤ 3 ④ 4 ④

- 1 지역 방언과 표준어는 둘 다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열 관계를 따질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지역 방언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② 지역 방언은 해당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③ 지역 방언의 개념이다.
 ④ 지역 방언은 사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우리말의 다양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2 ⑤는 지역 방언의 예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 방언의 예이다.

오답 풀이

- ① '이보게', '자네'는 세대에 따라 분화된 사회 방언의 예이다.
 ② '파종', '멸칭', '접붙이기'는 직업과 관련되어 분화된 사회 방언(전문어)의 예이다.
 ③ '먹주', '대', '삼패'는 직업과 관련되어 분화된 사회 방언(은어)의 예이다.
 ④ '어쩔', '어머머'는 성별에 따라 분화된 사회 방언의 예이다.

- 3 <보기>의 '선물 옵션'은 증권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전문어라 할 수 있다. ④는 특정 집단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은어에 대한 설명이다. 은어는 다른 집단에 대한 방어 목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밀어이기 때문에 전문어와는 성격이 다르다.

- 4 ④는 의사가 쓰는 전문어로 직업에 따른 사회 방언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청소년층에서 쓰는 말로 세대에 따른 사회 방언에 해당한다.

04 단어의 의미 관계

본문 047쪽

개·념·바·로·체·크

- 1 (1) ○ (2) × (3) ○ 2 (1) 동음이의어 (2) 유의 관계 3 (1) ㉠ (2) ㉡, ㉢ 4 (1) 동 (2) 다 (3) 동 (4) 다 5 (1) 반의 관계 (2) 상하 관계 (3) 유의 관계

기 본 다지기

- 1 ③ 2 ④ 3 ③ 4 ④

- 1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요소들은 모두 같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예를 들어 '직업'과 '연예인'의 관계에서는 '연예인'이 하위어인데 이것이 상의어 '직업'보다 더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다의어는 모두 유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의어가 달라질 수도 있다.

④ 우리말은 유의어가 발달해 있어 다양한 단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⑤ 동음이의어는 우연히 소리만 같을 뿐 의미는 완전히 다른 단어이다.

- 2 ①, ②, ③, ⑤의 '맞다'는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는 중심적 의미에서 의미가 확장된 다의어이다. 하지만 ④의 '맞다'는 오는 사람이나 물건을 예의로 받아들이는 의미로, 나머지 '맞다'와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이다.

- 3 '껍질'은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을 이르는 말이고, '껍데기'는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유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 4 ④의 '서다'는 '멈추다'는 의미이므로 반의어로는 '가다'나 '움직이다'가 적절하다. '죽다'는 반의어라기보다는 유의어라 할 수 있다.

지식 더하기

- ① 서자: 체면 따위가 바로 유지되다
② 섰다: 무딘 것이 날카롭게 됐다.
③ 섰다: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이 어느 한 곳에서 멈췄다.
⑤ 서서: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해서

실력 쓰기

본문 048~053쪽

01 ①	02 ②	03 ④	04 ③	05 ③	06 ②
07 ②	08 ①	09 ④	10 ③	11 ②	12 ⑤
13 ②	14 ③	15 ⑤	16 ①	17 ②	18 ④
19 ①	20 ①	21 ③	22 ③	23 ④	24 ③
25 ②	26 ②	27 ⑤	28 ②	29 ①	30 ②
31 ③	32 ②	33 ③	34 ②	35 ③	36 ①
37 ③	38 ①	39 ③	40 ②	41 ③	42 ④
43 ①	44 ⑤	45 ⑤	46 ③	47 ④	48 ④
49 ⑤					

- 01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말한다.

오답 풀이 ② 단어의 개념이다.

③ 음절의 개념이다.

④ 음운의 개념이다.

⑤ 어근의 개념이다.

- 02 ②의 '집안'은 '집+안'의 형태로,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03 ㉢의 '이야기책'은 '이야기+책+을'로 분석된다.

- 04 ㉠의 '보-'는 용언의 어근으로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① ㉡의 '느'는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이다.

② ㉢의 '을'은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이다.

④ ㉣의 '-았-'은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이다.

⑤ ㉤의 '-다'는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이다.

- 05 ㉠은 '국+밥', ㉢은 '군-+소리', ㉤은 '겁+-쟁이'로, 모두 2개의 형태소로 형성된 단어들이다.

오답 풀이 ㉡의 '노을'과 ㉣의 '무지개'는 1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06 '뛰놀다'는 '뛰(다)'와 '놀(다)'의 합성어로 '뛰-+놀-+-다'로 분석된다.

오답 풀이 ① '잡았다'는 '잡-+-았-+-다'로 분석된다.

③ '푸르다'는 '푸르-+-다'로 분석된다.

④ '셋노랑다'는 '셋-+노랑-+-다'로 분석된다.

⑤ '끓주리다'는 '끓-+주리-+-다'로 분석된다.

- 07 '동생'의 '은'은 조사로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고,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① '동생'은 자립 형태소, 실질 형태소이다.

③ '작-'은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이다.

④ '먹-'은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이다.

⑤ '-는-'은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이다.

- 08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에 공통적으로 붙을 수 있는 접두사는 '당해에 난'의 뜻을 더하는 '헛-'이다.

오답 풀이 ② '날-'은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③ '뜻-'은 '덜 익은', '미숙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④ '치-'는 '위로 향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⑤ '알-'은 '겉을 덮어 싹 것이나 떨어진 것을 다 제거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09 '전복죽'은 '전복(어근)+죽(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나머지 단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① '애-(접사)+벌레(어근)'

② '걸레(어근)+-질(접사)'

③ '맘-(접사)+아들(어근)'

⑤ '땀(어근)+-장(접사)'

10 ③의 '한여름'은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과 어근인 '여름'이 합쳐진 파생어이고, 나머지 단어는 모두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① '원손'은 '원(어근)+손(어근)'으로 된 합성어이다.

② '밤낮'은 '밤(어근)+낮(어근)'의 합성어이다.

④ '이슬비'는 '이슬(어근)+비(어근)'의 합성어이다.

⑤ '새아기'는 '새(어근)+아기(어근)'으로 된 합성어이다.

11 ②에서 뜻을 가지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단어는 '엄마', '아기', '잠자리', '살핀다'인데, '엄마', '아기', '살핀다'는 단일어이고, '잠자리'는 합성어이다. 따라서 ②의 문장에는 파생어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헛일', ③ '맨발', ④ '자랑스럽다', ⑤ '짓누르는'과 '꽃집'이 파생어이다.

12 <보기>의 '잠꾸러기'는 '어근+접미사+접미사'로 형성된 단어인데, ⑤의 '바람둥이'는 '바람+-둥이'로 '어근+접미사'로 형성된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느림보'는 '느리+-+로+-보'로 형성된 단어이다.

② '박음질'은 '박+-+음+-질'로 형성된 단어이다.

③ '싸움꾼'은 '싸우+-+로+-꾼'으로 형성된 단어이다.

④ '그림쟁이'는 '그리+-+로+-쟁이'로 형성된 단어이다.

13 '먹보'의 '-보'는 '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먹보'는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14 <보기>의 '대여섯'과 '소나무'는 어근들이 결합할 때 형태의 변화가 있지만 ③의 '별판'은 '별+판'으로 결합할 때 형태의 변화가 없다.

오답 풀이 ① '부삽'은 '불+삽'으로 결합할 때 '르'가 탈락한다.

② '마소'는 '말+소'로 결합할 때 '르'가 탈락한다.

④ '화살'은 '활+살'로 결합할 때 '르'가 탈락한다.

⑤ '엿저녁'은 '어제+저녁'으로 결합할 때 'ㄱ'가 탈락한다.

15 <보기>는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수식하는 합성어에 대한 설명이다. ⑤의 '팔다리'는 '팔'과 '다리'의 의미가 대등하게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① '물걸레'는 '물'이 '걸레'를 수식하는 합성어이다.

② '손수건'은 '손'이 '수건'을 수식하는 합성어이다.

③ '돌다리'는 '돌'이 '다리'를 수식하는 합성어이다.

④ '밥그릇'은 '밥'이 '그릇'을 수식하는 합성어이다.

16 '강산'은 어근 '강'과 어근 '산'이 합쳐지면서 '나라의 영토'라는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②, ④는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수식하는 합성어이고, ③, ⑤는 어근이 대등하게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합성어이다.

17 ②의 '겉쟁이'는 명사 '겉'에 접미사 '-쟁이'가 붙은 파생어이자 명사로, 품사는 달라지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동사의 어근 '느끼-'에 접미사 '-ㅁ'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③ 동사의 어근 '지우-'에 접미사 '-개'가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④ 명사 '꽃'에 접미사 '-답다'가 붙어 형용사가 된 파생어이다.

⑤ 명사 '공부'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 동사가 된 파생어이다.

18 ④의 '작은형'은 어근 '작(다)'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은 통사적 합성어의 예이다.

오답 풀이 ①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③ 연결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부사인 '산들'이 명사 '바람'을 꾸미고 있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19 단어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포함된다.

오답 풀이 ②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포함된다.

③ 수식언에는 관형사, 부사가 포함된다.

④ 관계언은 조사가 해당된다.

⑤ 독립언은 감탄사가 해당된다.

20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자리에 오는 단어들이다. 또한 체언은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21 ③의 '자네'는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대우하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이고, 나머지 단어는 모두 명사이다.

22 ③의 '것'은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일정한 일이나 사건, 사실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여기'는 지시 대명사이다.

② '소인'은 인칭 대명사로 예전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던 말이다.

④ '누구'는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⑤ '자기'는 인칭 대명사로, 한 문장에서 앞에 언급된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말이다.

23 ④의 '두'는 뒤에 오는 체언(명사)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나머지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24 <보기>의 '랑'은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이다. 이렇게 '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사는 ③의 '와'이다.

- 오답 풀이** ① '이'는 앞에 오는 '꽃'이 주어가 되게 하는 주격 조사이다.
 ②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④ '야'는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격 조사이다.
 ⑤ '에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지식 더하기

격 조사의 종류

- 주격 조사: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 예 이/가, 께서, 에서 등
- 목적격 조사: 목적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 예 을/를
- 관형격 조사: 관형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 예 의
- 부사격 조사: 부사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 예 에, 에게, 로, 로서, 와 등
- 보격 조사: 보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 예 이/가
- 서술격 조사: 서술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 예 이다
- 호격 조사: 부름말이 되게 하는 조사 예 아/야, 이여, 이시여

25 '가'와 '를'의 자리를 서로 바꾸면 '진수를 누나가 불렀다.'가 되어 의미가 달라진다.

26 ②의 '마다'는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오답 풀이** ①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③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④ '는'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⑤ '조차'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27 용언은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말이다.

- 오답 풀이** ① 홀로 쓰이거나 조사와 결합하는 것은 체언이다.
 ②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말한다.
 ③ 용언은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활용을 한다.
 ④ '매우'는 '예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28 '두다'는 혼자서 쓰이지 못하고 '적어'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고 있으므로 보조 용언에 해당한다. 보조 용언은 앞에 있는 본용언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본용언이 없으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의 '웃는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이다.
 ③ ㉡의 '기다린다'는 '택배를'과 같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④ ㉢의 '희다'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이다.
 ⑤ ㉣의 '이러하다'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를 가리키는 지시 형용사이다.

지식 더하기

- 성상 형용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예 성질: 뜨겁다, 차다, 달다, 쓰다, 맵다 등
 상태: 피곤하다, 아프다, 바쁘다, 좋다 등
- 지시 형용사 지시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예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렇다, 저렇다, 어떠한 등

29 '씻다'는 '씻고, 씻니, 씻어서' 등과 같이 활용을 할 때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② '울다'는 '우니'와 같이 활용을 할 때 어간의 'ㄹ'이 탈락한다.
 ③ '짓다'는 '지으니'와 같이 활용을 할 때 어간의 'ㅅ'이 탈락한다.
 ④ '가깝다'는 '가까워'와 같이 활용을 할 때 'ㅂ'이 'ㄱ'로 교체된다.
 ⑤ '기르다'는 '길러'와 같이 'ㄹ'이 탈락한다.

30 '부른다'는 동사, '달다'는 형용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라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이다'는 용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조사인 '이다'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④ 동사인 '부른다'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⑤ 형용사인 '달다'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31 ③의 '값다'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본용언이다. 하지만 나머지 밑줄 친 용언은 다른 용언에 기대어 그 말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 용언이다.

32 ①, ③, ④, ⑤는 감탄사인 데 반해, ②의 '은영아'는 감탄사가 아니라 명사 '은영'에 호격 조사 '아'가 붙은 형태이다.

- 오답 풀이** ① '네'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③ '어머'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깜짝 놀라거나 끔찍한 느낌이 들었을 때 내는 감탄사이다.
 ④ '아'는 말하는 이의 감정을 표출하는 감탄사이다.
 ⑤ '응'은 상대방의 대답을 재촉할 때 쓰는 감탄사이다.

33 제시된 문장 속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수식언은 '그', '우연히', '옛', '많이', '엄청'으로 총 5개이다. '그'와 '옛'은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우연히', '많이', '엄청'은 용언이나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34 ②의 '저기'는 말하는 이나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 오답 풀이** ① '정말'은 용언 '덥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③ '거의'는 용언 '끝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④ '무척'은 용언 '위험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이리'는 용언 '오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35 ㉢은 감탄사로 문장 속의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이다. 따라서 여러 성분들을 연결해 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관형사로 주로 체언을 수식한다.

② ㉡은 부사로 '빨리도'와 같이 조사가 붙기도 한다.

④ ㉢~㉣은 모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⑤ ㉢~㉣은 모두 독립된 품사로 다른 말과 띄어 쓴다.

36 우리말 어휘의 절반 이상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고유어가 우리말 어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7 '떡볶이'는 순우리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고유어이다.

오답 풀이

①의 '뽕'은 포르투갈어에서 온 외래어이고, ② '만두'는 한자어이다. ④ '메주'는 만주어(여진어)에서 온 외래어이고, ⑤ '해물탕'은 한자어이다.

38 '아침, 개나리'는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고유어이다. '순간(瞬間)', '칠판(漆板)'은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자어이다. '로켓', '택시'는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말처럼 쓰이는 외래어이다.

오답 풀이

②의 '소쿠리'는 외래어가 아닌 고유어이다.

③의 '연필(鉛筆)'은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이다.

④의 '모델'은 고유어가 아닌 외래어이다.

⑤의 '우동'은 한자어가 아닌 외래어이다.

39 <보기>에 제시된 어휘들은 모두 한자어인데, ③의 우리 민족의 정서적 감수성을 풍요롭게 한다는 내용은 고유어의 특징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한자어는 우리말의 음운 체계에 따라 발음된다는 점에서 이미 귀화가 끝난 우리말이라고 할 수 있다.

②, ④ 한자어는 대개 개념어, 추상어로 고유어에 비해 좀 더 정확하고 세분화된 의미를 지니고 있어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⑤ 한자어는 '언어', '이념'처럼 중국에서 들어온 말뿐 아니라 '사건'처럼 일본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에 들어온 말, '고생'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도 있다.

40 사회 방언 중 하나인 유행어는 일정 기간 동안 쓰이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나 모든 사회 방언이 그런 것은 아니다. 사회 방언 중 전문어나 관용어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서 쓰이는 말들도 많이 있다.

41 <보기>의 A는 '있는가?'와 같이 하계체를 쓰고, '자네'와 같은 호칭을 쓰고 있는데, 이는 어린 세대에서 쓰는 언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B는 '보세요'와 같이 해요체를 쓰고, '볼매'와 같은 유행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주로 청소년층에서 쓰는 언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A와 B의 언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의 '이태백'은 아이엠에프(IMF) 이후에 사용했던 유행어이다. 불쾌하고 두려운 것을 연상하게 하므로 다른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은 말은 금기어이다.

43 '손을 씻다'는 관용어로 '부정적인 일이나 찜찜한 일에 대하여 관계를 청산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에서는 '손에 있는 때나 더러운 것을 없게 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자식 더하기

② 머리를 굴리다: 머리를 써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내다.

③ 시치미를 떼다: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

④ 입이 짹다: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⑤ 목이 빠지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다.

44 ⑤에서 앞의 '손'은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하고 뒤의 '손'은 '일손'을 의미한다. 이 '손'들은 모두 '사람의 손'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나온 주변 의미들이므로 두 '손'은 다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단어들은 모두 동음이의 관계이다.

45 <보기>의 단어들은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서로 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⑤의 '생선-고등어'는 '생선'이 '고등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상의어로, 서로 상하 관계를 맺고 있다.

46 '답판을 짓다'에서 '짓다'는 '이어져 온 일이나 말 따위의 결말이나 결정을 내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만들다'는 이와 관련된 의미가 없으므로 '답판'과 결합하여 쓰일 수 없다.

47 두 단어가 반의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요소들은 모두 같아야 한다. 하지만 '육상'과 '수영'은 '운동을 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방식' 등 여러 의미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반의 관계로 볼 수 없다.

48 '생물'의 의미에는 '식물', '동물', '미생물'이 포함되므로 '생물'이 상의어, '식물', '동물', '미생물'이 하의어이다.

49 ⑤에서 '눈'은 문맥적 흐름을 고려할 때 '사람들의 눈길'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은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을 의미한다.

②는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③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을 의미한다.

④는 '시력'을 의미한다.

퀴즈로 마무리

본문 054쪽

㉢, ㉣

4 문장

01 문장 성분

본문 057쪽

개·넴·바·로·체·크

- 1 (1) ○ (2) ○ (3) × 2 (1) 서술어, 보어 (2) 부사어 3 (1) 주어 (2) 관형어 (3) 목적어 4 (1) 음식이 (2) 맛있구나 (3) 이 (4) 정말 (5) 하나야

기본 다지기

- 1 ④ 2 ③ 3 ④ 4 ③

- 1 문장을 이루는 데 일정한 구실을 하는 각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그중에서 관형어, 부사어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 성분으로,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독립 성분이다.

- 2 ③의 ‘폐허가’는 서술어인 ‘되었다’ 앞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말을 보충해 주는 문장 성분인 ‘보어’이다.

- 오답 풀이** ① ‘새’는 명사 ‘웃’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② ‘펼쳐진다’는 주어인 ‘태극기’의 동작을 풀이하는 서술어이다.
④ ‘무지개’는 풀이하는 말이 표현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이다.
⑤ ‘친구로’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한 부사어이다.

영·지식 더하기

필수적 부사어

부사어는 주성분이 아니므로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지만, 어떤 서술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때 쓰인 부사어는 생략할 수 없다.

- 예 • 나는 언니와 닮았다. (‘닮다’와 같은 서술어는 비교 대상이 되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 아버지는 나에게 용돈을 주었다. (‘주다’와 같은 서술어는 목적어 이외에 ‘체언+에게’와 같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 3 ㉠, ㉡은 부사어(부속 성분), ㉢은 관형어(부속 성분), ㉣은 주어(주성분), ㉤은 서술어(주성분)이다.

- 4 ③의 ‘사람이’는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으로 문장에서 ‘누가’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은혜’는 독립어로, 문장 안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홀로 쓰이는 문장 성분이다.
② ‘세’는 관형어로,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다.
④ ‘사라져 버렸다’는 서술어로, 주어의 동작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으로 문장에서 ‘어찌하다’에 해당한다.
⑤ ‘모두’는 부사어로, 동사와 같은 서술어를 꾸미는 문장 성분이다.

02 문장 구조 1

본문 059쪽

개·넴·바·로·체·크

- 1 (1) ○ (2) ○ 2 (1) 안은문장 (2) 이어진문장 3 (1) ㉠ (2) ㉢ 4 (1)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2)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5 (1) ㉠, ㉡ (2) ㉠, ㉢, ㉤

기본 다지기

- 1 ② 2 ② 3 ① 4 ①

- 1 ②는 ‘눈이(주어)+오자(서술어)+사람들이(주어)+몰려들었다(서술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 오답 풀이** ① 사람이(주어)+쳐다본다(서술어)
③ 그녀는(주어)+한다(서술어)
④ 그는(주어)+산타가(보어)+되었다(서술어)
⑤ 가연이는(주어)+불렀다(서술어)

- 2 ㉠은 ‘바람이 불다’와 ‘(주어 생략) 창문을 닫았다’라는 홑문장 두 개가 이어진문장으로, ‘불어서’와 ‘닫았다’가 서술어이다.

- 오답 풀이** ①에서 ㉠은 홑문장, ㉡은 겹문장이다.
③에서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④에서 ㉠의 주어는 ‘사람은’이므로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다.
⑤에서 ㉠은 겹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 3 ㉠, ㉡은 ‘원인’, ㉢은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사용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오답 풀이** ㉣은 ‘나열’, ㉤은 ‘선택’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사용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4 ①은 ‘나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②, ④, ⑤는 ‘원인’, ③은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사용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02 문장 구조 2

본문 061쪽

개·넴·바·로·체·크

- 1 (1) × (2) ○ 2 (1) 귀가 길다 (2) 책이 재미있다고 (3) 친구가 빌려준 (4) 간식을 먹기 3 (1) 서술절 (2) 관형절 (3) 명사절 (4) 부사절 4 (1) 안은문장 (2) 명사절 (3) 인용절

기본 다지기

- 1 ④ 2 ④ 3 ③ 4 ②

1 ④의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코가 길다'는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다. 그리고 '코끼리는 코가 길다.'는 서술절을 안은문장이다.

2 ④는 '그(관형어)+소식은(주어)+순식간에(부사어)+퍼져 나갔다(서술어).'로 이루어진 홑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마음이 착하다'라는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을 안은문장이다.

② '발표가 나다'라는 문장이 명사형 어미 '-기'와 결합하여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안은문장이다.

③ '내가 (백합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는'과 결합하여 뒤에 오는 명사 '꽃'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⑤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말에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고'를 결합하여 인용의 기능을 하는 인용절을 안은문장이다.

3 '그가 남긴'은 주어 '편지가'를 꾸며 주므로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는 절이다. '벽지가 깨끗하게'는 서술어인 '칠해졌다'를 꾸며 주므로 부사어로 쓰이는 절이다. 따라서 ㉠에는 관형절, ㉡에는 부사절이 들어가야 한다.

4 ②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문장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나머지 밑줄 친 부분들은 부사어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 지식 더하기

부사절을 이루는 '-이'

'소리가 없이', '예상과 달리'에 붙어 부사절을 만드는 '-이'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사형 어미가 아니라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이'를 접미사로 보는 이유는 어미는 접사와 달리 결합되는 용언에 제약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절을 이루는 경우는 '없이, 달리, 같이' 등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② 종결 표현에 사용된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에 대한 높임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대를 높일 때에는 '집에 가세요.', 상대를 낮출 때에는 '집에 가.'와 같이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2 <보기>는 종결 어미 '-ㅂ시다'를 사용한 청유문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라고 요청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평서문은 종결 어미 '-다, -네, -ㅂ니다' 등을 통해 표현한다.

② 의문문은 종결 어미 '-느냐/냐, -니, -ㅂ니까' 등을 통해 표현하며, 문장의 끝에 물음표를 사용한다.

③ 명령문은 종결 어미 '-아라/어라, -게, -ㅂ시오' 등을 통해 표현한다.

⑤ 감탄문은 종결 어미 '-구나, -군, -구려' 등을 통해 표현하며, 문장의 끝에 느낌표를 사용한다.

3 ③에 제시된 문장은 평서형 종결 어미 '-다'가 쓰인 평서문으로, 길을 물어보았다는 내용을 단순히 진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문장은 명령문이고, 설명은 의문문에 대한 내용이다.

② 제시된 문장은 청유문이고, 설명은 명령문에 대한 내용이다.

④ 제시된 문장은 감탄문이고, 설명은 청유문에 대한 내용이다.

⑤ 제시된 문장은 의문문이고, 설명은 감탄문에 대한 내용이다.

4 ㉠은 명령문의 형식이고 ㉡은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과 ㉡은 모두 청자에게 책을 빌려 달라는 명령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은 청자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다.

③, ④ 동일한 명령의 의도를 전달할 경우 명령문이 의문문보다 더 직접적인 반면, 의문문이 명령문보다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03 문법 요소 ①

본문 063쪽

개·념·바·로·체·크

1 (1) 질문, 대답 (2) 감탄문 (3) 명령문, 요청 2 (1) ○ (2) × (3) ○ 3 (1) 감탄문 (2) 평서문 (3) 청유문 (4) 명령문 (5) 의문문 4 (1) 청유문 (2) 의문문 (3) 명령문 (4) 평서문

기·본·다·지·기

1 ④ 2 ④ 3 ③ 4 ⑤

1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을 종결 표현이라고 하며, 국어의 문장은 이 종결 표현에 따라 전체 문장의 의미가 좌우된다.

03 문법 요소 ②

본문 065쪽

개·념·바·로·체·크

1 (1) 높임 표현 (2) 간접 높임 (3) 상대, 비격식체 2 (1) × (2) ○ (3) ○ 3 (1) 진지 (2) 여쭙(여쭙어)볼게 (3) 연세 4 (1) 해체 (2) 하계체 (3) 해라체 (4) 해요체 (5) 하오체 (6) 하십시오체 5 (1) 삼촌 (2) 어른신 (3) 아버지

기·본·다·지·기

1 ③ 2 ④ 3 ⑤ 4 ③

1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뉘다 (ㄱ). 상대 높임법의 경우 화자가 청자를 높이는 정도에 따라

종결 어미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실현되고(ㄴ), 객체 높임법의 경우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거나 ‘드리다’, ‘여쭙다’ 등의 높임의 뜻을 지닌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실현된다(ㄹ).

오답 풀이 ㄷ. 격식체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청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비격식체이다.
ㄹ. 주체 높임법은 주격 조사 ‘이/가’ 대신에 ‘께서’를 사용한다.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는 것은 객체 높임법의 경우에 해당한다.

2 <보기>는 문장의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주체 높임에서는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말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통해 대상을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보기>의 ‘저녁’은 높임의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또 문장에서 높여서 표현하고 있지도 않다.

3 <보기>는 객체 높임법에 관한 설명으로, ⑤는 서술의 객체이자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머니’를 ‘뵈고’라고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조사인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어머니’를 높인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② 해라체를 통해 대상을 낮추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③ 조사인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인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④ 조사인 ‘께서’를 통해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인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으며,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걱정거리’를 높임으로써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4 상대 높임법은 공적인 자리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격식체와 사적인 자리나 격식을 덜 차리는 자리에서 사용하는 비격식체로 나뉜다. 비격식체에는 해요체와 해체가 있으며, ③은 해요체가 쓰인 비격식체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은 하계체, ②는 해라체, ④는 하오체, ⑤는 하십시오체가 쓰인 격식체 문장이다.

1 시제는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2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에는 선어말 어미 ‘-았-/-었-’, ‘-았았-/-었었-’, ‘-더-’, 관형사형 어미 ‘-(으)ㄴ’, ‘-던’을 붙이거나 부사어인 ‘어제’, ‘옛날’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⑤는 미래 시제를 만드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3 <보기>는 선어말 어미 ‘-는-’이 사용된 현재 시제의 문장인데 반해, ②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선어말 어미 ‘-았-’이 사용된 과거 시제의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은 서술어가 형용사이므로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③은 선어말 어미 ‘-ㄴ-’, ④는 부사어 ‘지금’과 관형사형 어미 ‘-는’, ⑤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 선어말 어미 ‘-ㄴ-’이 사용된 현재 시제의 문장이다.

4 <보기>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미래 시제를 나타낸 것이다. ③은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결합한 ‘-ㄹ 것’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선어말 어미 ‘-았-’이 쓰인 과거 시제이다.

② 부사어 ‘어제’와 선어말 어미 ‘-았-’이 쓰인 과거 시제이다.

④ 선어말 어미 ‘-ㄴ-’이 쓰인 현재 시제이다.

⑤ 선어말 어미 ‘-더-’가 쓰인 과거 시제이다.

03 문법 요소 3

본문 067쪽

개·념·바·로·체·크

1 (1) 시제 (2) 과거, 미래 2 (1) × (2) ○ 3 (1) 쏟았다 (2) 부른다 (3) 어제, 워던, 재밌더라 (4) 내일, 만날 것이다 (5) 말하겠습
니다 4 (1) 는 (2) 었 (3) 할 것이다 5 (1) 진 (2) 완 (3) 진

기본 다지기

1 ④ 2 ⑤ 3 ② 4 ③

03 문법 요소 4

본문 069쪽

개·념·바·로·체·크

1 (1) 능동, 피동 (2) 주동, 사동 2 (1) ○ (2) × 3 (1) 피 (2) 피
(3) 능 4 (1) -히- (2) -우- (3) -추- (4) -이- (5) -리-
5 (1) 쥐가, 쫓긴다 (2) 아이에게, 먹인다

기본 다지기

1 ④ 2 ④ 3 ④ 4 ③

1 사동 표현은 동작이나 행동을 시키는 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거나 영향을 끼친 주체를 밝힐 때 사용한다.

2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능동문의 주어를 피동문의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바꾼다. 또한 ‘쏟다’는 접사에 의한 피동 표현이 불가능한 동사이

므로 '-아지다'를 활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물이 동생에 의해 쏟아졌다.'라고 바꾸는 것이 옳바르다.

- 3 ㉠은 주동문으로 아기의 행동을 강조하며, ㉡은 사동문으로 아기가 행동을 하게 하는 주체인 엄마를 강조한다.

오답 풀이 2, 3 주동 표현을 사동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사동문에 새로운 주어를 만들고,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 혹은 부사어로 바꾸어야 하며, 주동사를 사동사로 바꾸어야 한다.

5 사동 표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동 접미사를 붙이거나 '-게 하다'를 붙여 쓸 수 있다.

- 4 ㉢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피동 표현이고, 나머지는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사동 표현이다.

2 <보기>의 문장을 '못' 부정문으로 바꾸면 '현주는 그 책을 읽지 못했다.'가 된다. '못' 부정문은 주어의 능력 부족이나 외부의 원인에 의한 부정을 표현할 때 쓰이는 것이므로 '안' 부정문으로 표현했을 때에는 의미가 달라진다.

3 '안' 부정문은 부정 부사 '안'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짧은 부정문과 '-지 아니하다'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긴 부정문으로 나뉜다. <보기>의 문장은 '읽다'에 '-지 아니하다'를 붙여 표현한 긴 부정문이다.

4 '현주는 그 책을 안 읽었다.'는 부정 부사 '안'을 사용하여 표현한 짧은 부정문이므로 <보기>의 문장과 의미가 동일하다.

- 4 <보기>는 주어의 능력 부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못' 부정문이자 부정 부사 '못'이 사용된 짧은 부정문에 대한 설명이다. 5는 주어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못' 부정문이자 짧은 부정문이다.

오답 풀이 1, 4 주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인 '안' 부정문이자 짧은 부정문이다.

2 주어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못' 부정문이자 긴 부정문이다.

3 주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인 '안' 부정문이자 긴 부정문이다.

03 문법 요소 5

본문 071쪽

개·념·바·로·체·크

- 1 (1) 라고, 고 (2) 능력, 의지 2 (1) ○ (2) × (3) × (4) ○ 3
(1) 간접 (2) 직접 (3) 간접 4 (1) 신지 않았다 (2) 듣지 못했다
5 (1) 못 (2) 안 (3) 못

기·본 다·지·기

- 1 ㉢ 2 ㉢ 3 ㉤ 4 ㉤

- 1 직접 인용문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끌어다 쓰는 것으로, 인용절에 큰따옴표로 표시하고 조사 '라고'를 쓴다. 3은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나폴레옹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1 간접 인용문이다.

2 '지식은 ~ 자란다'에 큰따옴표를 써야 한다.

4 작은따옴표가 아닌 큰따옴표를 써야 한다.

5 인용 조사 '고' 대신 인용 조사 '라고'를 써야 한다.

- 2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꿀 때 조사와 종결 어미, 대명사 등이 달라진다. 위 문장의 경우 직접 인용문의 '내'는 '자기'로, 청유형 종결 어미 '-하시다'는 '-자'로, 인용 조사 '라고'는 인용 조사 '고'로 바뀐다.

- 3 <보기>의 문장은 '안' 부정문으로, 주어의 의지에 의한 부정 표현이다. 명령문에 사용되는 부정 표현은 '-지 마/마라'이다.

오답 풀이 1 '안' 부정문은 주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표현할 때 쓰인다.

04 담화

본문 073쪽

개·념·바·로·체·크

- 1 (1) ○ (2) × (3) ○ 2 (1) 상황 맥락, 청자, 시간 (2) 사회·문화적 맥락 3 (1) 화자와 청자 (2) 의도와 목적 4 (1) ㉠ (2) ㉡ (3) ㉢

기·본 다·지·기

- 1 ㉤ 2 ㉢ 3 ㉢ 4 ㉤

- 1 담화는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모두의 영향을 받으며, 실제 담화 상황 속에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 2 등교 시간이 지나 선생님이 화가 났다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담화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선생님은 시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늦은 것을 질책하는 것이므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반응이 적절하다.

- 3 할머니는 손자와 세대가 달라, 손자가 사용하는 어휘를 알아듣지 못한 것이다.

- 4 ㉠~㉢은 모두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상황 맥락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이다.

실력 쌓기

본문 074~079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①	05 ⑤	06 ④
07 ②	08 ①, ③	09 ②	10 ⑤	11 ③	12 ③
13 ①	14 ⑤	15 ③	16 ③	17 ②	18 ⑤
19 ②	20 ②	21 ④	22 ⑤	23 ⑤	24 ②
25 ①	26 ②	27 ②	28 ③	29 ②	30 ③
31 ④	32 ②	33 ②	34 ⑤	35 ⑤	36 ⑤
37 ②	38 ④	39 ①	40 ④	41 ②	42 ⑤
43 ②					

01 ④에서 '즉시'는 서술어 '됐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이 문장에서 관형어는 쓰이지 않았다.

02 문장에서 꼭 필요한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이다. ②의 '진실'은 목적어로 문장에서 꼭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① '빨리'는 부사어, ③ '정어야'는 독립어, ④ '까만'은 관형어, ⑤ '점점'은 부사어이다.

03 '밝은(관형어)', '두둥실(부사어)' 모두 주성분을 꾸며 주는 부속 성분이다.

오답 풀이 ①에서 '오'는 독립어이다.
②에서 '밝은'은 관형어이지만 '두둥실'은 부사어이다.
④에서 '떠올랐구나'는 서술어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⑤에서 '오'는 독립 성분으로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04 보어는 서술어 '되다/아니다'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말이다. ①에서 '아니다' 앞에 '이/가'를 붙여 쓴 말인 '범인이'가 보어이다.

오답 풀이 ② 마당에(부사어)+꽃이(주어)+활짝(부사어)+피었다(서술어)
③ 성실한(관형어)+은주는(주어)+모범생이다(서술어)
④ 어머니(독립어)+눈이(주어)+평평(부사어)+내리는구나(서술어)
⑤ 그(관형어)+아이(주어)+우유를(목적어)+쏟아 버렸다(서술어)

05 '매우'는 서술어인 '맑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고, ⑤의 '보글 보글' 역시 서술어인 '끓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오답 풀이 ①, ②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③은 문장의 주체가 되는 주어이다.
④는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이다.

06 문장 속에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역할을 하며, 필요에 따라 서술어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은 안은문장이 아니라 안긴문장이다.

07 ②의 '나는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나는(주어 1)+바란다(서술어 1)'와 '가족이(주어 2)+행복하다(서술어 2)'의 두 문장이 결합된 겹문장이다.

08 겹문장에는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이 있다. ①은 인용절을 안은문장이고, ③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 풀이 ②, ④, ⑤는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09 ②는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사용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자'는 한 동작이 막 끝남과 동시에 다른 동작이나 사실이 잇따라 일어남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③ '-지만'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④ '-러'는 가거나 오거나 하는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⑤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10 제시된 문장은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하여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나열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⑤ 역시 연결 어미 '-지만'을 사용하여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대조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① 연결 어미 '-(어)서(원인)'에 의해 앞뒤 문장이 종속적으로 결합된 이어진문장이다.
② 연결 어미 '-면(조건)'에 의해 앞뒤 문장이 종속적으로 결합된 이어진문장이다.
③ 관형사형 어미 '-던'이 붙어 뒤에 오는 명사 '곳'을 꾸며 주는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④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안은문장이다.

11 ①, ②, ④, ⑤는 안은문장이나, ③은 이어진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은 서술절을 안은문장, ②는 부사절을 안은문장, ③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④는 명사절을 안은문장, ⑤는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12 ㄱ은 '인구가 많다'는 서술절을 안은문장, ㄴ은 '그가 땀땀함'이라는 명사절을 안은문장, ㄷ은 '경찰에게 붙잡힌'이라는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오답 풀이 ㄴ은 홑문장이고, ㄷ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13 ①은 '비둘기가 많다'라는 서술절을 안은문장이다.

오답 풀이 ②는 홑문장(부사어+주어+보어+서술어)이다.
③은 관형절을 안은문장, ④는 명사절을 안은문장, ⑤는 인용절을 안은문장이다.

14 <보기>는 '어둠은 빛을 가릴 수 없다.'는 인용절을 안은문장(간접 인용문)이고, ⑤ 또한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인용절을 안은문장(직접 인용문)이다.

오답 풀이 ① 서술절(경관이 아름답다)를 안은문장
② 명사절(우리가 무죄이다)를 안은문장
③ 관형절(동생이 빵을 가져왔다)를 안은문장
④ 부사절(남의 도움도 없다)를 안은문장

15 ㉠은 '우리가 우승했다'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된 명사절을 안은문장으로, 이 문장에서 명사절은 주어의 기능을 한다.

16 제시된 문장은 감탄문으로,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독백조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은 명령문, ②는 평서문, ④는 의문문, ⑤는 청유문에 대한 설명이다.

17 <보기>는 종결 어미 '-자'를 사용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눈사람을 만드는 행동을 같이할 것을 요청하는 청유문이다. ② 역시 종결 어미 '-하시다'를 사용하여, 함께 다른 길로 갈 것을 요청하는 청유문이다.

오답 풀이 ①은 평서문, ③은 의문문, ④는 감탄문, ⑤는 명령문의 종결 표현 방식이 쓰인 문장이다.

18 <보기>는 종결 표현의 형식과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인데, ⑤는 의문문의 형식이면서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어 종결 표현의 형식과 기능이 일치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④는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①, ③, ④는 요청과 명령의 기능을, ②는 감탄의 기능을 가진다.

19 ②에서 '계시다'는 주어인 '할머니께서'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특수 어휘로, 주체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한 주체 높임 표현이다.
③ 부사어인 '어머니께'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인 '여쭙다'를 사용한 객체 높임 표현이다.
④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해요체를 사용한 상대 높임 표현이다.
⑤ 청자인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상대 높임 표현이다.

20 ②에서 '오라셔'는 '오라고 하셔'의 준말로, 청자인 '상윤'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오라고'라고 쓰고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쓴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 → '께서', '아프대요' → '편찮으시대요'
③ '와셔' → '오셔서'
④ '자고 있습니다' → '주무시고 계십니다'
⑤ '보고' → '뵙고'

21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에서는 '물어보리'가 아닌 '여쭙어보리'로 써야 한다.

22 <보기>에서 '주다' 대신 '드리다'를 사용한 것은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①, ④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인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으며,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인 '께'를 사용하고 있다.
②, ③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23 <보기>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교장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경우이므로, '있다'에 '-(으)시-'를 붙여 표현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말씀'이 '말'의 높임 표현이므로 '교장 선생님'을 간접

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말씀'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② '께서'는 사람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여 그 대상을 높임과 동시에 그 대상이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따라서 사람이 아닌 '말씀'에 붙여 사용할 수 없다.

③ 부사격 조사인 '께'로 바꾸어 높임 표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조사 '에게'이다. '의'는 앞 체언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조사로, 높임 표현을 만들기 위해 '께'로 바꾸어 쓸 수 없다.

④ 공적인 자리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격식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이 문장의 주체는 '아버지'로, 주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문장의 객체는 '할머니'로,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특수 어휘인 '모시고'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상대 높임 표현은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어요(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25 ㉠은 현재 시제, ㉡은 과거 시제, ㉢은 미래 시제이다. ㉠에서는 동사 '뛰다'에 선어말 어미 '-ㄴ-'을 붙여 현재 시제를 드러내고 있다.

26 ㄱ.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결합한 '-(으)ㄴ 것'을 사용한 미래 시제이다. ㄴ.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한 현재 시제이다. ㄷ.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한 미래 시제이다. ㄹ.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한 과거 시제이다. ㄹ. 관형사형 어미 '-ㄴ'과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한 과거 시제이다.

27 ㉠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현재 시제가 되려면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여 '던지는'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28 ③의 '놓고 있다'는 현재 시제이면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상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은 현재 완료상('-아 있다'), ②는 과거 완료상('-았-'/'-고서'), ④는 미래 진행상('-겠-'/'-고 있다'), ⑤는 과거 진행상('-었-'/'-(으)면서')이다.

29 ㉡는 사동 접미사 '-기-'를 사용하여 주동 표현을 사동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오답 풀이 ①은 '-기-', ③은 '-히-', ④는 '-리-', ⑤는 '-이-'의 피동 접미사를 사용하여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었다.

30 피동 표현은 행동의 주체를 드러내는 능동 표현과 달리, ③과 같이 행동의 주체를 감추어 책임을 피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31 <보기>는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사동 표현으로, '돌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붙었다. ④는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피동 표현으로, '덮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었다.

오답 풀이 ① '속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었다.
② '말다'에 사동 접미사 '-기-'가 붙었다.
③ '울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붙었다.
⑤ '지다'에 사동 접미사 '-우-'가 붙었다.

32 ②의 사동 표현은 ‘국물을 줄이다’이므로 사동 접미사 ‘-이-’가 필요하다.

33 ①, ③, ④, ⑤는 모두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관계인 데 반해, ②의 ‘앓다 - 앓히다’는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의 관계이다.

34 주어가 행동을 직접 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사동 표현을 쓰거나,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쳐 써야 한다. ⑤의 경우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이해를 하게 하는 사동의 의미를 지니므로 ‘이해시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알맞다.

오답 풀이 ①, ③, ④는 이중 피동 표현으로 ①은 ‘놓였다’, ③은 ‘진행되고’, ④는 ‘쓰인’이라고 쓰는 것이 알맞다. ②는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 쓰인 것으로 ‘소개해 줄게’라고 쓰는 것이 알맞다.

35 ㉠은 다른 사람의 말을 내용과 형식 모두 그대로 가져와 쓴 직접 인용문으로 직접 말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준다.

오답 풀이 ① ㉠은 간접 인용문, ㉡은 직접 인용문이다.
② ㉠과 ㉡ 모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동일하다.
③ ㉠은 다른 사람 말의 내용만 가져온 인용 표현이다.
④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36 직접 인용문인 <보기>를 간접 인용문으로 바꿀 때,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라고’는 ‘고’로 바꾸어야 한다. ‘하고’는 직접 인용 표현, 특히 의성어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이다. <보기>를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간호사는 나에게 자기가 올 때까지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했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7 ㉠은 ‘안’ 부정문이자 짧은 부정문, ㉡은 ‘못’ 부정문이자 짧은 부정문, ㉢은 청유문의 부정 표현이다. ㉠을 긴 부정문으로 고치면 ‘숙제를 내지 않았다.’이다.

38 ④는 외부의 원인에 의한 부정 표현이므로 ‘못’ 부정문을 사용하여 ‘가지 못했다’나 ‘못 갔다’로 표현해야 한다.

39 ‘못’ 부정문 중 짧은 부정문은 ‘못’ 뒤에 동사만 올 수 있으므로, ①에서 형용사인 ‘똑똑하다’는 ‘못’ 부정문 중 짧은 부정문의 형태를 취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②는 ‘안 갔다’, ③은 ‘안 만났다’, ④는 ‘못 들 거야’, ⑤는 ‘안 먹는다’로 쓸 수 있다.

영·지식 더하기

부정 부사 ‘못’은 주로 동사와만 어울리고 형용사 앞에는 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부 형용사와는 긴 부정문의 형태로 쓰이는데, 이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40 말이나 글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상황 맥락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의미하며, 지역, 세대, 문화 등의 차이에 따라 담화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41 <보기>에서는 유리창을 깨뜨린 상황에 대해 표면적으로 ‘장하다’고 칭찬해 주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질책의 의도를 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유리창을 깨뜨린 아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아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만 정확한 발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이다.

⑤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달라져도 <보기>에 제시된 상황 맥락은 그대로이므로 문장의 해석은 달라지지 않는다.

42 담화 상황에서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대화해야 한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항상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며,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이나 처지를 배려하는 경우도 있다.

43 ㉠은 상황 맥락을 파악해야 올바른 담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며, 상황 맥락이 달라지면 청자의 대답과 반응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미가 몸을 움츠리며 말을 했다면, 민준은 창문을 닫아 주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퀴즈로 마무리

본문 080쪽

빵, 떡볶이, 과자, 아이스크림, 수박, 포도

5 어문 규정

01 한글 맞춤법 ①

본문 083쪽

개·념·바·로·체·크

- 1 (1) 한글 맞춤법 (2) 소리, 어법 2 (1) × (2) ○ (3) ○ 3
(1) ㉠, ㉡ (2) ㉢, ㉣ 4 (1) 말이 (2) 같이 5 두음 법칙

기 본 다지기

- 1 ① 2 ⑤ 3 ⑤ 4 ④

-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적을 때, 즉 표기를 통일하기 위한 규정이고, 우리말의 발음을 통일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은 표준 발음법이다.
- 한글 맞춤법 제5항에서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올림소리 'ㄴ, ㄷ,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에서 '담뽕'은 'ㄴ, ㄷ, ㄹ,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담뽕'으로 적는 것이 옳바르다.
오답 풀이 ①의 '몹씨'는 '몹시'로, ②의 '깍두기'는 '깍두기'로 적어야 옳바르다.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③의 '깨끗하게'는 '깨끗하게'로, ④의 '어깨'는 '어깨'로 적어야 옳바르다.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 한글 맞춤법 제6항에서는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ㅌ, ㄷ'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⑤는 [난:나치]로 소리 난다.
- ㉠ '신녀성'은 독립성이 있는 단어 '여성(女性)'에 접두사적 성격의 한자어 '신(新)-'이 결합된 구조이므로, 두음 법칙에 따라 '신여성'이라고 적는 것이 바른 표기이다.

01 한글 맞춤법 ②

본문 085쪽

개·념·바·로·체·크

- 1 (1) ○ (2) ○ (3) × 2 (1) 믿음 (2) 높이 3 (1) 냇가, 나뭇가지 (2) 갯잎, 베갯잇 (3) 잇몸, 아랫마을 4 (1) 잘난 체를 한다. (2)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기 본 다지기

- 1 ② 2 ③ 3 ① 4 ③

- 용언에서 ㉠과 같이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 이유는 어간은 개념을 나타내며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반면, 어미는 용언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며 활용할 때에 변하므로 이를 구별하여 적으면 잘못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글 맞춤법 제19항에서는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길다, 넓다, 높다, 깊다'에 문법적 성질을 바꾸는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가 되면 '길이, 넓이, 높이, 깊이'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 '꺾병'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셋방'은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에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단어에 해당한다. '나룻배'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오답 풀이 ②에서 '치과' → '치과', ③에서 '춥점' → '춥점', '기왓집' → '기왓집', ④에서 '윗층' → '위층', ⑤에서 '인삿말' → '인사말', '고래기름' → '고래기름'으로 고쳐야 옳바른 표기이다.
-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자고 싶은 만큼 자거라.'라고 띄어 쓰는 것이 맞다.

02 표준어 사정 원칙

본문 087쪽

개·념·바·로·체·크

- 1 (1) 표준어 (2) 서울말 2 (1) ○ (2) × (3) × (4) ○ 3 (1) 강남콩 (2) 수강아지 (3) 쌍둥이 (4) 뽕내기 4 (1) 안절부절못하다 (2) 안쓰럽다 (3) 녁쿨

기 본 다지기

- 1 ② 2 ④ 3 ④ 4 ①

- 표준어 사정 원칙 제24항에서는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예전에 방언이던 단어도 표준어보다 널리 쓰이게 되면 표준어로 지정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표준어는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로, 교양 있는 사람들(계층적 조건)이 두루 쓰는 현대(시대적 조건) 서울말(지역적 조건)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⑤ 표준어 사정 원칙은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과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를 통해 표준어가 발음의 변화가 뚜렷할 때, 어휘 선택의 변화가 있을 때, 어휘 사용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됨을 알 수 있다.

- 2 '삭월세'는 '월세(月費)'의 탄 말로 '사글세'와 함께 써 왔으나 '삭월세'는 단순히 한자의 음만 취한 것이므로 표준어로 삼지 않고,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 3 ④는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 중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깡충깡충'이 표준어이다.
- 오답 풀이** ①, ②는 준말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③에서 '신출내기'는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단어에 해당한다.
⑤에서 '아지랑이'는 'ㅣ'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4 한자어의 경우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예 가루약(○)-말약(×)). 그리고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예 겸상(○)-맞상(×)). 즉,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에서도 더 널리 쓰이는 쪽을 표준어로 정하고 있다.

03 표준 발음법

본문 089쪽

개·념·바·로·체·크

- 1 (1) 전통성 (2) 단모음, 이중 모음 2 (1) ○ (2) × (3) ○ 3 (1) [ㄱ] (2) [ㄴ] (3) [ㄹ] (4) [ㄷ] (5) [ㄹ] (6) [ㅂ] 4 (1) 달기 (2) 흑파 (3) 늑피 (4) 말개 5 (1) ㉠ 담노, ㉡ 눈노기 (2) ㉠ 서울력, ㉡ 불려우

기 본 다지기

- 1 ② 2 ③ 3 ④ 4 ⑤

- 1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표준 발음법은 혼동을 보이는 발음 생활에 하나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 2 ③에서 '예의'는 [예]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예:의/예:이]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의 겨울[겨울], ④의 아버지[아버지]와 같이 이중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가 쓰인 경우에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②의 지혜[지혜/지혜]와 같이 '예, 레' 이외의 'ㅓ'는 [ㅓ]로도 발음한다.
⑤의 가져[가져]와 같이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쯔, 처'는 [저, 쯔, 처]로 발음한다.

- 3 ④의 값은[갑슨]과 같이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은 밭지[밭:찌], ②는 읍고[읍:꼬], ③은 뉘대[닐:따], ⑤는 없대[업:따]로 발음한다.

- 4 ⑤는 냇가[내:까/넌:까]로 발음되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은 꽃잎[꼇:닙], ②는 숨이불[숨:니불], ③은 한여름[한:너름], ④는 색연필[생년필]로 발음되며, 모두 'ㄴ' 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단어이다.

자식 더하기

표준 발음법 제30항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예 셋길[새:길/쌔:길], 빨랫돌[빨래돌/발래돌]

실력 쌓기

본문 090~093쪽

01 ④	02 ④	03 ①	04 ⑤	05 ②	06 ②
07 ③	08 ②	09 ⑤	10 ①	11 ②	12 ④
13 ③	14 ⑤	15 ⑤	16 ③	17 ③	18 ④
19 ④	20 ⑤	21 ①	22 ②	23 ④	24 ①
25 ③	26 ②				

- 01 '얼음'은 [어름]으로 소리 나는 단어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에 해당한다.
- 02 '꽃, 꽃이, 꽃만'을 소리대로 '꼇, 꼬치, 꼇만'과 같이 적으면 '꽃'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단어를 구성하는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동일하게 적는 것이다.
- 03 '웃니'의 올바른 표기는 '웃니'이다. 참고로 '웃-' 및 '웃-'을 명사 '위'에 맞추어 '웃-'으로 통일하는 것은 표준어 사정 원칙과 관련된 예에 해당한다.
- 04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⑤는 ③의 '새색시[새색씨]'와 마찬가지로 '납작하다[납짜카다]'로 적어야 한다.
- 05 한글 맞춤법 제11항에서는 '한자음' '랴,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양심(良心)'으로 적는 것이 옳바르다.
- 오답 풀이** ①은 '지상 낙원', ③은 '유행', ④는 '연세', ⑤는 '당뇨병'으로 적어야 한다.

06 ㉔에서 ‘갑자기’는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기 때문에 ‘갑짜기’가 아닌 ‘갑자기’로 적는 것이다.

07 ‘넘어지다’와 같이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만, ‘드러나다, 쓰러지다’와 같이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08 ‘노름(도박)’은 어간 ‘놀-’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지만, 어간의 본뜻과 떨어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예이다.

09 ㉔의 ‘첫눈’은 순우리말 합성어로 [천눈]이라고 발음되지만, 뒷말의 첫소리가 모음이 아닌 자음 ‘ㄴ’이므로 ㉔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 없다.

10 ㉔은 한자인 ‘외가’와 순우리말 ‘집’이 합쳐진 합성어로, [와:가집/웨:갸집]이라고 발음된다. 이와 같이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외갸집’으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다.

11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지만, ㉔와 같이 앞말인 ‘떠내려가’가 합성 동사인 경우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하므로 ‘떠내려가 버렸다’로 쓰는 것이 바른 표기이다.

12 ㉔의 ‘여기서부터이다’는 대명사인 ‘여기’에 조사인 ‘서’, ‘부터’, ‘이다’가 이어진 말이다. 이는 한글 맞춤법 제41항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는 경우에도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쓰는 경우에 해당한다.

13 ㉔은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이므로 ‘마중’과 같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이 바르다.

오답 풀이 ①처럼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 ‘횃수’를 포함한 6개의 단어는 사이시옷을 적어야 한다.

②의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㉔과 같이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④는 어간에 ‘-음’이 붙어 명사가 된 것이므로 원형을 밝혀 ‘걸음’이라고 써야 한다.

⑤의 ‘별’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로, ‘한 별’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14 표준어의 계층적 조건은 ‘교양 있는 사람들’, 시대적 조건은 ‘현대’, 지역적 조건은 ‘서울말’이다.

15 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을 의미하는 단어는 ‘설거지’가 표준어이다.

오답 풀이 ①은 ‘장사치’, ②는 ‘윗도리’, ③은 ‘강낭콩’ ④는 ‘수소’가 표준어이다.

16 ③의 ‘발가숭이’를 비롯하여 ‘깡충깡충, 바람둥이’ 등은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로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다.

17 ‘옷-’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따라서 ㉔은 ‘윗몸’이라고 쓸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와 같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가 불고, ④, ⑤와 같이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윗-’이 붙는다.

18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데 ㉔의 경우에도 ‘철따구니/철따서니/철따지’ 등이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철때기’는 표준어가 아니다.

19 기술자에게는 ‘-장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으므로, ‘키버들로 고리짜거나 키 따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룰 때는 ‘유기장이’로 써야 한다.

20 위의 표는 기존 표준어에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추가로 제정한 표준어를 일부 제시한 것으로, 이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몇 가지 형태가 널리 쓰이게 된 실제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1 표준 발음법은 발음이 달라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글을 쉽게 읽고 의미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정한 규정은 한글 맞춤법이다.

22 ‘ㄷ’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켜, 처’는 [저, 켜, 처]로 발음하므로 ‘다쳐’의 표준 발음은 [다쳐]이다.

2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해야 하므로 ‘무늬’는 [무니]로만 발음해야 한다.

24 겹받침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나, 용언의 어간 말음 ‘ㄷ’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된다. 따라서 ㉔은 맑대[막따]와 같이 겹받침 ‘ㄷ’이 [ㄱ]으로 발음되지만, ㉔는 맑고[말꼬], ㉔은 맑게[말께], ㉔는 늑고[늑꼬], ㉔는 굵게[굵:께]와 같이 겹받침 ‘ㄷ’이 [ㄷ]로 발음된다.

25 <보기>의 단어들은 ‘맨입[맨닙]’, ‘담요[담:뇨]’, ‘꽃잎[꼇닙]’, ‘늑막엽[늑망넵]’으로 ‘ㄴ’ 음이 첨가되어 발음된다. ㉔은 [망닙], ㉔는 [내:봉냐], ㉔는 [영엄농], ㉔는 [시공뉴]로 모두 ‘ㄴ’ 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는데, ㉔의 [등용문]은 ‘ㄴ’ 음이 첨가되지 않는다.

26 ㉔은 ‘ㄴ’ 음을 첨가하여 [꼇니폰]이 되었다가, 비음화 현상에 따라 결국 [꼇니폰]으로 발음해야 한다.



퀴즈 로 마무리

본문 094쪽



6 한글

01 한글 창제의 원리와 우수성

본문 097쪽

개·념·바·로·체·크

- 1 (1) × (2) ○ 2 (1) 병서, 연서 (2) 모아쓰기 3 (1)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2)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 (3) 입 모양 (4) 이 모양 (5) 목구멍 모양 4 (1) ㄱ, ㄴ, ㄷ (2) ㅋ, ㆁ, ㆁ (3) ㄴ, ㄷ 5 (1) · (2) ㅍ (3) ㅍ

기 본 다지기

- 1 ③ 2 ② 3 ④ 4 ④

- 1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는 기본자만 해당한다. 기본자를 제외한 글자 중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든 글자이고, 이체자는 기본자의 모양을 달리하여 만든 글자이다.
- 2 모음의 기본자 ‘·, ㅡ, ㅣ’는 삼재(三才)인 하늘(天), 땅(地), 사람(人)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다. 발음의 원리를 글자 모양에 반영한 것은, 발음 기관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자음의 기본자이다.
- 3 ㉠의 원리는 자음자 두 개를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법인 ‘연서’이고, ㉡의 원리는 모음자를 같이 쓰거나 합하여 쓰는 방법인 ‘합용’에 해당한다.
- 4 한글은 ‘ㄱ, ㅋ, ㆁ’ 등과 같이 비슷한 소리를 내는 글자는 그 모양도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는 기본자와 파생 글자 간의 음성학적 관계를 글자 형태에 반영한 것으로, 이런 창제 원리는 글자를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소리가 다르더라도 비슷한 글자로 만들지는 않았다.

실력 쌓기

본문 098~099쪽

- 01 ③ 02 ④ 03 ② 04 ① 05 ① 06 ④
07 ④ 08 ③ 09 ① 10 ② 11 ② 12 ⑤
13 ②

- 01 모음에서 재출자는 초출자와 초출자를 합용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초출자에 기본자인 ‘·’를 결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 02 <보기>는 『훈민정음』 언해본의 현대어 풀이이다. 이를 통해 한글의 창제 정신인 자주정신(㉠), 애민 정신(㉡), 실용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 03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자이고, 이

와 같은 혀소리의 발음 기관 모양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은 어금닛소리 ‘ㄱ’, ③은 입술소리 ‘ㄷ’, ④는 잇소리 ‘ㅅ’, ⑤는 목소리 ‘ㅇ’이 발음될 때의 발음 기관 모양이다.

- 04 제시된 글은 자음의 제자 원리 중 가획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ㄱ’의 경우 한 획을 더한 ‘ㅋ’만 가획자에 해당하며, ‘ㆁ’은 자음 두 개를 나란히 적은 병서에 해당한다.
- 05 자음 자모는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한 단계씩 소리가 세진다는 특징이 있다.
- 06 <보기>의 세 자음은 이체자에 해당하는 글자들로, 기본자의 모양을 변형하여 만든 글자들이다. ‘ㅇ’과 ‘ㄷ’은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ㄹ’은 현재 사용하는 글자이다.
- 07 병서는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와 같이 같은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각자 병서와 ‘ㅈ, ㅊ, ㅌ, ㅍ’와 같이 다른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합용 병서로 나뉜다.
- 08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만든 모음 기본자는 ‘ㅡ’이다.
- 09 ㉠의 초출자는 ‘ㄱ, ㄴ, ㄷ, ㄹ’, ㉡의 재출자는 ‘ㅊ, ㅌ, ㅍ, ㅑ’이다. ㉠에서 ‘국어’의 모음은 ‘ㅑ, ㅑ’로 초출자끼리 이루어져 있고, ‘효율’의 모음은 ‘ㅊ, ㅑ’로 재출자끼리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과 ㉡에 해당하는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이다.
- 오답 풀이 ② ㉠ ㄱ, ㄴ: 초출자, ㉡ ㅊ: 합용자, ㅑ: 초출자
③ ㉠ ㄱ: 기본자, ㄴ: 초출자, ㉡ ㅊ: 합용자, ㅑ: 초출자
④ ㉠ ㅑ: 초출자, ㅡ: 기본자, ㉡ ㅑ: 재출자, ㅑ: 초출자
⑤ ㉠ ㄱ, ㄴ: 초출자, ㉡ ㅑ: 재출자, ㅊ: 합용자
- 10 제시된 모음들은 모음자를 같이 쓰거나 합하여 만든 합용자에 해당한다.
- 11 ㉠은 현재 한글의 표기 방식인 모아쓰기, ㉡은 영어의 표기 방식인 풀어쓰기 방식에 해당한다. ㉠과 같이 모아쓰기를 할 경우, 음절의 구분이 명확하여 읽기에 편리하고 그 의미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
- 12 세종 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문맹 퇴치에 크게 공헌했다. 문맹 퇴치 공로상의 이름을 ‘세종 대왕상’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업적을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13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떠 만든 목소리(후음)이고, ‘ㄴ’은 입 모양을 본떠 만든 입술소리(순음)이다. 따라서 두 자음자가 발음되는 기관은 각기 다르다.

퀴즈 로 마무리

본문 100쪽

2508



1 언어

기출로 끝내기

부록 102쪽

01 ① 02 ⑤ 03 ③ 04 ① 05 ③

01 언어의 자의성은 언어의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므로 ①이 그 예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는 언어의 사회성, ③은 언어의 역사성, ④는 언어의 창조성, ⑤는 언어의 규칙성의 예이다.

02 <보기>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는 바뀐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의 역사성에 관한 예로는 ‘얼굴’의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다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은 언어의 자의성, ②는 언어의 규칙성, ③은 언어의 사회성, ④는 언어의 창조성의 예이다.

03 <보기>는 꾸미는 내용을 덧붙여 문장을 확대한 것이므로 단어들의 결합으로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깊다.

04 (가)는 언어를 문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언어의 규칙성’에 관한 대화이고, (나)는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되기도 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에 관한 대화이다.

05 우리말로 ‘쥐’라고 부르는 것을 영어로 ‘마우스’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 필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즉 같은 대상이라고 해도 그것을 나타내는 말소리나 문자는 나라마다 다르며 이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이후에는 어느 한 개인이 함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②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변화, 소멸하는데, ‘컴퓨터’와 ‘마우스’는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이 생기면서 새로 생겨난 단어이다.

④ 언어는 특정한 뜻(의미)과 그것을 표현하는 말소리(형식)가 결합된 기호 체계이다.

⑤ 인간은 제한된 단어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처음 들어보는 문장도 이해할 수 있다.

2 음운

기출로 끝내기

부록 103~105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③ 05 ① 06 ⑤
07 (1) ㅁ+ㅏ+ㅓ+ㅓ (2) ㅏ, ㅓ 08 ④ 09 ② 10 ②
11 ① 12 ⑤ 13 ① 14 ① 15 ① 16 ⑤
17 ⑤ 18 ② 19 ④

01 모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자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로, 국어에서는 자음과 모음과 같은 분절 음운 및 소리의 장단, 높낮이, 억양과 같은 비분절 음운이 의미 변별의 기준이 된다.

② ‘말’과 ‘물’은 가운데소리인 모음 ‘ㅏ’와 ‘ㅓ’가 달라져 그 의미가 달라진다.

④ ‘볼’과 ‘곰’은 첫소리인 자음 ‘ㅂ’과 ‘ㄱ’이 달라져 그 의미가 달라진다.

02 ‘ㄱ’은 혀를 제일 아래에 두고(저모음),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리지 않고(평순 모음) 소리 내는 모음이다.

오답 풀이 ① ‘ㅣ’는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리며 발음하는 원순 모음이다.

② ‘ㅣ’는 입이 조금만 열려 혀의 위치가 높이 있는 고모음이다.

③ ‘ㅏ’는 입을 크게 벌려 혀의 위치가 낮은 저모음이자 혀의 위치가 뒤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⑤ ‘ㄱ’은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리며 발음하는 원순 모음이자 혀의 위치가 뒤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03 ㉠에는 ‘ㅂ’, ㉡에는 ‘ㅅ’, ㉢에는 ‘ㅌ’, ㉣에는 ‘ㅇ’이 들어가므로, 이 음운을 모두 이용하여 만든 글자는 ‘별사탕’이다.

04 거센소리는 ‘ㅋ, ㆁ, ㅍ, ㅊ’, 된소리는 ‘ㅃ, ㅆ, ㅈ, ㅊ, ㅍ’가 해당한다. 하지만 ‘부엌’에는 거센소리만 있고, ‘빨리, 짝’에는 된소리만 들어 있다.

오답 풀이 ① ‘부엌’의 ‘ㅋ’, ‘꽃밭’의 ‘ㅌ’, ‘감기, 짝’의 ‘ㄱ’이 여린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② ‘빨리’의 ‘ㄹ’, ‘감기’의 ‘ㄹ’이 윗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④ ‘꽃밭’의 ‘꽃’에는 여린입천장소리인 ‘ㄱ’, 천입천장소리인 ‘ㅌ’이 들어 있고, ‘밭’에는 입술소리인 ‘ㅂ’, 잇몸소리인 ‘ㅌ’이 들어 있다.

⑤ ‘빨리’의 ‘빨’에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 ‘ㅏ’가 들어 있고, ‘리’에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 ‘ㅣ’가 들어 있다.

05 ㉠은 울림소리로 발음될 때 목청, 즉 성대의 떨림이 있으며 부드럽고 밝은 느낌을 준다.

06 <보기>의 음운 중에서 잇몸소리이면서 콧소리인 것은 ‘ㄴ’이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문장에 쓰인 모음은 ‘ㅏ, ㅓ, ㅣ’로 모두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 ② '하늘'과 '마늘'은 첫소리인 자음 'ㅎ'과 'ㄴ'이 달라져 그 의미가 달라진다.
- ③ 된소리는 후두의 근육을 긴장시켜 내는 소리이고, 거센소리는 숨을 거세게 쉬며 내는 소리이다.
- ④ '하늘'의 '늘'에는 콧소리(비음)인 'ㄴ'과 흐름소리(유음)인 'ㄹ'이 사용되었다.
- 07 '썉'은 'ㅍ+ㅏ+ㄱ'과 같이 3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썉'과 '썉'은 자음(첫소리와 끝소리)은 같지만 'ㅏ'와 'ㅑ'라는 모음(가운뎃소리)이 다르기 때문에 뜻과 소리가 다른 별개의 단어가 된 것이다.
- 08 '따따가'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으나 '따따가'의 표준 발음은 [따따가]이다.
- 09 <보기>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는 '닭장[닥쟝], 엽집[엽집], 값진[갑진], 고맙다[고맙따]'로 모두 4개이다.
- 10 ②의 '읍내'는 [읍내]로 발음되며, 'ㅅ+ㄴ → ㅆ+ㄴ'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은 비음 'ㄴ' 앞에서 'ㄱ'이 'ㅇ'으로 바뀐 비음화의 예이다.
- ③은 비음 'ㄴ' 뒤에서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뀐 비음화의 예이다.
- ④는 유음 'ㄹ' 뒤에서 비음 'ㄴ'이 유음 'ㄹ'로 바뀐 유음화의 예이다.
- ⑤는 비음 'ㄴ' 앞에서 'ㄱ'이 'ㅇ'으로 바뀐 비음화의 예이다.
- 11 <자료>에서는 앞 글자의 끝소리 'ㄴ'이 뒤에 오는 글자의 첫소리 'ㄹ'과 만나서 유음인 'ㄹ'로 바뀌는 자음 동화의 유음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①의 '진리' 역시 앞 글자의 끝소리 'ㄴ'이 뒤에 오는 글자의 첫소리 'ㄹ'과 만나서 유음인 'ㄹ'로 바뀌어 [질리]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② '협력'은 [협력]으로 발음되며 'ㅂ'과 'ㄹ'이 만나 'ㄹ'은 'ㄴ'으로 바뀌고, 바뀐 'ㄴ'의 영향으로 'ㅂ'이 같은 발음 위치의 'ㅁ'으로 바뀐 비음화 현상의 예이다.
- ③ '항로'는 [항노]로 발음되며 'ㅇ' 뒤에 'ㄹ'이 이어질 때 'ㄹ'이 'ㄴ'으로 바뀐 비음화 현상의 예이다.
- ④ '백로'는 [백노]로 발음되며 'ㄱ'과 'ㄹ'이 만나 'ㄹ'은 'ㄴ'으로 바뀌고, 바뀐 'ㄴ'의 영향으로 'ㄱ'이 같은 발음 위치의 'ㅇ'으로 바뀐 비음화 현상의 예이다.
- ⑤ '남루'는 [남누]로 발음되며 'ㄴ' 뒤에 'ㄹ'이 이어질 때 'ㄹ'이 'ㄴ'으로 바뀐 비음화 현상의 예이다.
- 12 '디'와 '지'를 발음해 보면 '지'를 발음할 때 혀의 움직임이 더 적어 발음하기가 쉬운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 13 ①은 [끄틀]로 발음되고, 끝소리 'ㅌ'이 형식 형태소의 첫소리 'ㄱ' 모음을 만나 발음된 것도 아니므로 구개음화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14 ①은 'ㄱ'과 'ㅎ'이 'ㅋ'으로 합쳐진 음운 축약의 예이다.

- 오답 풀이** ②, ③은 자음과 자음이 만나 소리가 변한 자음 동화의 예이다.
- ④는 파생어에서 앞말의 자음이 모음 'ㅣ'와 만나 'ㄴ'이 첨가된 예이다.
- ⑤는 'ㅌ'이 모음 'ㅣ'를 만나 'ㄷ'으로 변한 구개음화의 예이다.
- 15 <자료>에서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과 합쳐져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자음 축약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끓기'는 '끓'의 끝소리 'ㅎ'과 '기'의 첫소리 'ㄱ'이 합쳐져 거센소리 'ㅋ'으로 바뀌게 되므로 [끈키지]라고 발음된다.
- 16 ⑤는 'ㅎ'과 'ㄱ'이 만나서 'ㅋ'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음운 탈락이 아니라 음운 축약의 예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 'ㅎ'이 탈락하였다.
- ②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 'ㅅ'이 탈락하였다.
- ③ 모음 'ㅡ'로 끝난 어간이 모음 'ㅏ'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났을 때 앞의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 ④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 'ㄹ'이 탈락하였다.
- 17 '입학'은 [이팍]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ㅂ'과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 'ㅍ'으로 축약된 것이다. 그리고 '소나무'는 '술+나무'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졸다'에서 'ㅎ'과 'ㄷ' 음운이 'ㅌ'으로 축약되었다.
- ② '파랗고'에서 'ㅎ'과 'ㄱ' 음운이 'ㅋ'으로 축약되었다.
- ③ '바느질'에서 명사 '바늘'과 접미사 '-질'이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였다.
- ④ '뻘뻘'에서 어간 '피-'와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할 때 'ㅌ'로 축약되었다.
- 18 ㉠에서 나타난 음운 현상은 'ㄴ'이 'ㄹ'의 앞에서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이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 'ㄴ, ㅁ'과 만나 'ㄴ, ㅁ, ㅇ'과 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 19 밑줄 친 낱말 중에서 자음 동화가 일어나는 낱말은 '광한루, 막론, 앞마당, 신록, 대관령, 동료'이고,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낱말은 '여닫이, 끝이', 음운의 축약이 일어나는 낱말은 '급하게, 만형, 달려'이다. 따라서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낱말로 묶인 것은 자음 동화가 일어나는 낱말만으로 묶인 ④이다.

3 단어

부록 106~110쪽

기출로 끝내기

01 ④	02 ⑤	03 ⑤	04 ③	05 ②	06 ①
07 ④	08 ㉠: 멧(어근)+-쟁이(접사), ㉡: 헛-(접사)+과일(어근)	09 ㉠: 누리+-꾼 → 파생법 이용, ㉡: 새로운 대상			
10 ③	11 ①	12 ③	13 ①	14 ⑤	15 ⑤
16 ④	17 ③	18 ②	19 ④	20 ⑤	21 ⑤
22 ③	23 ④	24 ②	25 ④	26 ②	

01 의존 형태소는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를 말한다.

02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은 ‘활짝’, ‘꽃’이다.

오답 풀이 ① 이 문장은 5개의 단어(활짝, 핀, 꽃, 을, 보았다)로 이루어져 있다.

② ‘핀’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피-+-ㄴ’으로 형태소의 개수는 2개이다.

③ 이 문장에서 단어이자 그 자체로 형태소가 되는 것은 ‘활짝’, ‘꽃’, ‘을’이다.

④ ‘보았다’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보-+-았-+-다’로 1개의 실질 형태소와 2개의 형식 형태소로 분석된다.

03 ‘웃값’은 두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므로, 복합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딸애’는 ‘딸’과 ‘애’라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② ‘밭고랑’은 ‘밭’과 ‘고랑’이라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③ ‘조카애’는 ‘조카’와 ‘애’라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④ ‘마음’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04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일어는 ‘강’, ‘엄마’이고, 접사와 어근이 결합한 파생어는 ‘햇바지(햇-+바지)’, ‘치숫다(치-+숫다)’, ‘욕심쟁이(욕심+-쟁이)’이다. 그리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는 ‘자갈돌(자갈+돌)’, ‘물안개(물+안개)’, ‘오가다(오다+가다)’이다.

05 ‘배’, ‘나무’, ‘버선’, ‘심술’, ‘뒹-’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이다.

오답 풀이 ① ‘뒹-’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어근이다.

③, ④, ⑤는 접사에 대한 설명이다.

06 오른쪽 상자의 첫 번째 칸에 있는 ‘메아리’는 단일어, 두 번째 칸에 있는 ‘눈사람’은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 세 번째 칸에 있는 ‘햇감자’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따라서 ㉠에는 합성어인 ‘물방울’, ‘뱀그릇’, ‘뛰놀다’가 들어갈 수 있고, ㉡에는 파생어인 ‘한겨울’, ‘드눴다’가 들어갈 수 있다.

07 ㉠에는 ‘군-’이 어근에 붙어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부분이

므로 ‘접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에는 ‘군소리’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파생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에는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뜻을 더하는 접사 ‘풋-’과 ‘고추’가 합쳐진 ‘풋고추’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8 ‘멧쟁이’는 ‘멧’이라는 어근에 ‘-쟁이’라는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햇과일’은 ‘햇-’이라는 접사와 ‘과일’이라는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다.

09 ‘누리꾼’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새말을 만드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엄지족’의 경우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불닭’ 또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음식을 가리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10 독립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11 체언은 ‘독도’, ‘돌’, ‘친구’, ‘벚’, ‘이것’, ‘너’, ‘자네’로 7개이고, 용언은 ‘먹다’, ‘새롭다’, ‘검다’, ‘건다’로 4개이다. 수식언은 ‘꽤’, ‘옛’, ‘철썩철썩’으로 3개이고, 독립언은 ‘아이고’, ‘네’로 2개이다. 관계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 ‘달리면서’와 ‘쓰고(쓰다)’는 모두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한다.

13 ‘지난(지나다)’과 ‘잡힐(잡히다)’은 동사이고, ‘고요한(고요하다)’과 ‘푸르게(푸르다)’는 형용사이다.

14 <자료>에서 ‘관형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관형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⑤의 ‘모든’이다.

오답 풀이 ①은 서술격 조사, ②는 부사, ③은 동사, ④는 형용사이다.

15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수식언으로, 관형사와 부사가 해당된다. ⑤의 ‘한’은 관형사이고 ‘뚜벅뚜벅, 생긋’은 부사이다(3개).

오답 풀이 ① ‘이’는 관형사이고 ‘너무’는 부사이다(2개).

② ‘어느’는 관형사이고 ‘갑자기’는 부사이다(2개).

③ ‘드디어’는 부사이다(1개).

④ ‘새’는 관형사이고 ‘빨리’는 부사이다(2개).

16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이다.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의미일 때에는 조사 ‘로써’를 쓴다.

17 ㉠의 기본형은 ‘사랑하다’로 품사는 동사이다.

18 ‘하나, 둘, 셋’ 등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고, ‘첫째, 둘째, 셋째’ 등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이다.

오답 풀이 ① ㉡의 품사는 수사로 ‘하나’에 ‘가’라는 조사가 결합할 수 있지만, ㉠의 품사는 관형사로 수사와 달리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③, ④ ㉢의 품사는 수사로 순서를 가리키지만, ㉡의 품사는 관형사로 ‘어떠한(어떤)’의 방식으로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⑤ ㉔은 '논'이라는 조사가 결합해 있지만 '말이(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순위인 사람)'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품사는 명사이다.

19 ④의 '보다'는 '책이나 신문 따위를 읽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판단(判斷)하고'가 아니라 '책이나 신문, 잡지 따위를 구입하여 읽다.'라는 뜻의 '구독(購讀)하고'라는 한자어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도출(導出)하다: 【...에서 ...을】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내다.

② 목격(目擊)하다: 【...을】 눈으로 직접 보다.

③ 수행(遂行)하다: 【...을】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내다.

⑤ 진찰(診察)하다: 【...을】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이나 증상을 살피다.

20 새말을 만들 때는 가급적 순우리말을 활용해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1 '은어'는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은 '전문어', ③은 '새말', ④는 '유행어'에 대한 설명이다.

22 ㉔은 알려지지 않는 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말이자 어떤 특정 집단이 자기들끼리만 사용하는 말인 은어이고, ㉔은 여러 사람들이 짧은 시기에 두루 사용하는 말인 유행어이다.

23 '축약어', '통신 언어' 등은 사회 방언에 속한다.

24 <자료>에서는 가운데 어휘를 중심으로 왼쪽에 유의 관계인 어휘를 제시하고, 오른쪽에 반의 관계인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②에서 '획득하다'는 '얻다'와 유의 관계인 어휘가 맞지만, '가지다'는 '얻다'와 반의 관계인 어휘가 아니다.

25 ④는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발'이라는 의미에서 주변적으로 의미가 확장된 다의어의 사례이다. 나머지 밑줄 친 단어들의 관계는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26 '사과'가 '과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과'는 하의어, '과일'은 상의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④는 유의 관계의 예이고 ③, ⑤는 반의 관계의 예이다.

4 문장

부록 111~117쪽

기출로 끝내기

01 ③	02 ②	03 ②	04 ①	05 ④	06 ⑤
07 ③	08 ①	09 ②	10 ②	11 ①	12 ④
13 ③	14 ④	15 ⑤	16 ①	17 ⑤	18 ④
19 ④	20 ⑤	21 ②	22 ⑤	23 ④	24 ①, ④
25 ②	26 ①	27 ②	28 ②	29 ⑤	30 ①
31 ④	32 ②	33 ⑤	34 ④	35 ④	36 ④
37 ②	38 ④	39 ③			

01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은 주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다. ③의 '세찬'은 '비'를 수식하는 관형어이고, '자주'는 '내린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다.

02 ㉔의 '나무가'는 <자료>에 제시된 문장의 주어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㉔은 관형어, ㉔, ㉔, ㉔은 부사어로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03 ①의 '눈이', ③의 '학생들이', ④의 '강아지가', ⑤의 '비둘기가'는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②의 '중학생이'는 '되다' 앞에서 그 뜻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보어이다. ②에서 주어는 '현우는'이다.

04 서술어의 자릿수는 의미상 온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말한다. 이 문장의 서술어인 '한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교실에서'와 '열심히'는 생략이 되어도 문장이 성립되는 부사어이므로 서술어의 자릿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05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주성분은 ㉔, ㉔, ㉔, ㉔이고, 그중에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은 ㉔, ㉔, ㉔이다. 그중에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역할을 하는 주어인 것은 ㉔, ㉔이고, 특별한 의미만을 더하는 보조사와 결합되어 있는 것은 ㉔이다.

06 ㉔의 '주었다'는 주어(그녀는)와 목적어(선물을), 그리고 부사어(나에게)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㉔의 '넣었다'도 주어(그녀는)와 목적어(책), 그리고 부사어(가방에)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 풀이 ㉔과 ㉔은 두 자리 서술어, ㉔은 한 자리 서술어이다.

07 '그는 노래를 잘 부른다.'와 '그는 춤을 못 춘다.'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는 노래를 잘 부르지만 춤을 못 춘다.'로 만들어야 자연스럽다.

08 '지렁이는 혐오스러워 보인다.'와 '지렁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등 공신이다.'의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 '그렇지만'으로 연결해야 자연스럽다.

09 ②는 '봄이 온다.'와 '꽃이 핀다.'라는 두 문장을 이어서 만든 '이어진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은 '홀문장', ③~⑤는 '안은문장'이다.

10 ②는 두 문장이 앞 절과 뒤 절의 관계에 따라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고, 나머지는 홀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더 큰 문장을 이룬 안은문장이다.

11 ㉠의 '아이는 꽃과 같이 예쁘다.'는 '꽃과 같이'라는 안긴문장이 부사절이 되어 용언을 꾸미는 '부사절을 안은문장'이다. ㉡의 두 문장을 '부사절을 안은문장'으로 만들려면 '소리가 없다.'에 부사를 만드는 접사 '-이'를 붙여 안긴문장으로 만들고, 이 안긴문장을 수식을 받을 용언 앞에 두어 ㉠과 같은 문장으로 바꾸면 된다.

12 ㉡은 명사절을 안은문장으로, 안긴문장인 '친구가 오기를'은 문장에서 서술어 '기다렸다'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13 '진수는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었다.'에서 '배가 터지도록'은 서술어 '먹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문장은 부사절을 안은문장에 해당한다.

14 학생들이 소란스러운 상황이므로, ④는 상황에 적절한 종결 표현이 아니다.

15 ①~⑤에 나타난 종결 표현의 형식은 모두 의문문이다. ⑤의 경우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대답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종결 표현의 형식과 기능이 일치한다. 반면에 ①~④는 모두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①~④는 형식과 기능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16 '편찮으시다'는 높여야 할 대상인 '어머니'를 직접 높이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설명한 높임의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

17 ⑤는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높이는 방법이므로 어휘 자체로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18 문장의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서술어에 '-시-'를 붙여서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할머니께'의 '께'는 문장의 객체를 높인다.

② '어머니께서'의 '께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인다.

③, ⑤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다' 대신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19 ④에서 '주무시다'는 문장의 주어인 '어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고, 나머지는 모두 문장에서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다.

20 (나)에서 승우는 지훈이에게 비격식체인 '해체'를, 지훈이는 승우에게 '해요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승우는 후배 지훈이에게 격식체인 '하십시오'체와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1 뉴스는 공식적인 상황이므로 격식체를 써야 하는데 ②에서는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높임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②는 '내일 날씨는 춥다고 합니다.'로 표현해야 한다.

22 <보기>에서는 과거 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⑤의 '했 던'은 선어말 어미 '-었-', 관형사형 어미 '-던'을 통해 과거 시제를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과 ④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과 일치되는 현재 시제이다.

②와 ③은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 보다 나중인 미래 시제이다.

23 ㉡은 '앞으로'라는 부사어와 함께 사용되어 미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므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24 ㉠을 참고할 때, 형용사의 경우 기본형을 그대로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④). 그리고 ㉡을 참고할 때, 동사의 경우 동사의 어간에 '-는-'을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①).

25 사동 표현은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②의 '보이다'는 동사 '보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26 ①은 주동 표현을 사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사동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오답 풀이 ② 피동 접미사 '-히-', ③ 피동 접미사 '-이-', ④ 피동 접미사 '-기-', ⑤ 피동 접미사 '-리-'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

27 ②의 '지워지지'는 ㉡과 같이 어간 '지우-'에 '-어지다'를 붙여서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

오답 풀이 나머지는 이중 피동으로 ①의 '생각되어진다'는 '생각된다', ③의 '믿겨지지'는 '믿기지', ④의 '보여진다'는 '보인다', ⑤의 '잡혀지지'는 '잡히지'로 바꾸어 써야 한다.

28 <보기>에서 ㉠ '예상됩니다'와 같이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예상을 한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의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29 ⑤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는 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④는 피동 표현이다.

30 ㉠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사동 표현이다. ㉡ 역시 형이 동생에게 옷을 입도록 시키는 사동 표현이다.

31 ㉡은 사동 표현으로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때 대상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오답 풀이 ① ㉠과 ㉡에서 머리를 감은 대상은 동생이다.

- ② ㉠에서 주어는 동생이고 ㉡에서 주어는 엄마이다.
 ③ 동생이 머리를 감게 된 구체적 원인을 강조하는 것은 ㉡이다.
 ⑤ ㉡은 동생이 머리를 감도록 시켰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

32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은 ‘안’ 부정문으로 ‘㉠’은 ‘안’ 부정문이자 짧은 부정문이고, ‘㉡’은 ‘안’ 부정문이자 긴 부정문이다.

33 ㉠은 ‘안’ 부정문으로 주어의 의지에 의한 부정 표현이고, ㉡은 ‘못’ 부정문으로 주어의 능력 부족이나 외적인 원인에 의한 부정 표현이다. 따라서 ㉠과 ㉡은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34 ㉡에서 주어는 맹견의 주인(사람)이며, ‘쓰다’의 어간 ‘쓰-’에 사동 접사 ‘-이우-’가 사용된 올바른 사동 표현이다.

35 ㉡은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속삭였다.’가 아닌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속삭였다.’라고 써야 올바른 간접 인용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직접 인용 표현이 쓰인 문장이다.

- ② ㉡은 간접 인용 표현이 쓰인 문장이다.
 ③ ㉢을 직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형이 활짝 웃으며 “우리 팀이 우승했어.”라고 외쳤다.’이며 인칭 대명사와 인용 조사가 달라진다.
 ⑤ ㉤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동생은 아버지께 자기도 집에 가야 하느냐고 여쭙었다.’이며 인용 조사 외에도, 인칭 대명사, 문장 종결 어미를 고쳐야 하며 큰따옴표도 삭제해야 한다.

36 ㉣는 민우와 준수가 함께 영화를 도왔다는 의미와, 민우가 준수와 영화 둘 다 도왔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37 도서관에서는 ‘책을 찢지 마세요.’, ‘소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등이 적절한 해석이 된다.

38 (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은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의 어머니에 말에 시험을 잘 보겠다고 대답한 것이므로 어머니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대답이다.

39 제시된 포스터는 “2018 동계 올림픽, 평창에서 만나요!”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참관해 달라고 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답화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5 어문 규정

부록 118~119쪽

기출로 끝내기

- 01 ③ 02 ④ 03 ③ 04 ⑤ 05 ④ 06 ⑤
 07 ② 08 ② 09 ⑤ 10 ④ 11 ②
 12 (1) 의지를 (2) 따우려고

01 ‘㉠’은 ‘법률’, ‘㉡’은 ‘된장찌개’, ‘㉢’은 ‘어서 오십시오.’가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02 ㉢의 ‘야단법석’이 맞춤법에 맞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시간적인 사이를 두고서 가끔씩’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간간이’가 맞는 말이다.

- ② ‘올린지’에서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예요’는 ‘-이에요’의 준말이므로 ‘이썬신장군이에요’라고 표기해야 한다.
 ⑤ ‘달갑지 아니하여 싫거나 언짢은 기분이 조금 나다.’라는 뜻의 낱말은 ‘썩썩하다’이므로 ‘썩썩할’로 표기해야 한다.

03 특정한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음운으로 발음되는 현상인 두음 법칙을 인정하는 것은 남한의 맞춤법이다.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락원(樂園)’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표준어 사정 원칙 제8항은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로 지금까지 모음 조화 규칙에 얽매어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현실 발음을 받아들여 음성 모음화 현상을 인정한 것이다.

- ② 불만하다(형용사): 보고 얻을 것이 많거나 볼 가치가 있다.
 ④ 표준어 사정 원칙 제18항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형태를, 그 발음 차이가 국어의 일반 음운 현상으로 설명되면서 두 형태가 다 널리 쓰이는 것들이라는 이유로 모두 표준어로 삼은 규정이다. ‘쇠고기/소고기’에서 ‘쇠고기’는 전통적 표현이나, ‘소고기’도 우세해져 두 가지를 다 쓰게 한 것이다.
 ⑤ 표준어 사정 원칙 제24항은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로 제23항과 마찬가지로 방언을 표준어로 승격시킨 규정이나, 여기에서는 애초의 표준어를 아예 버린 것이 다르다.

자식 더하기

표준어 사정 원칙 제3절 방언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명계(○) - 우렁챙이(○), 물방개(○) - 선두리(○)

04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고, 숫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쓰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만 오천 원을 내고 이백 원의 잔돈을 받았다.’라고 써야 규정에 맞는 표현이다.

9 지식 더하기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글을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말의 조사는 접미사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이어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형식 형태소이며 의존 형태소이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쓰는 것이다.

05 ④의 '이사 온지'의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06 서울말이 표준어가 된 것은 서울이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 문화 등의 중심지이기 때문이지 다른 방언보다 우수하기 때문은 아니다. 지역 방언이나 신조어가 세력을 얻어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를 굳혀 가면 표준어가 될 수도 있다.

07 '강남콩'에서 '강남콩'으로 표준어가 바뀐 사례이다.

오답 풀이 ① '새벽녘'이 표준어이다.

③ '수태지'가 표준어이다.

④, ⑤ '만날', '짜장면' 모두 표준어이다.

08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하므로 '윗도리'가 표준어이다.

09 표준 발음법 제15항은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라고 하고 있다. 단, 겹받침의 경우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해야 하므로 '닭앞에'는 받침 'ㄹ' 중 뒤의 'ㄱ'을 연음하여 [다가페]로 발음해야 한다.

10 표준 발음법 제5장 제18항은 자음 동화에 대한 규정인데, ④는 구개음화 현상의 예이다.

오답 풀이 ④ 표준 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11 '띄어쓰기'의 'ㅣ'는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3'에 따라 [ㅣ]가 아니라 [ㅣ]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띄어쓰기'는 [떠어쓰기]로 발음해야 한다.

12 '의지름'의 '의'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모음으로 발음이 된다. 따라서 '의지름'은 [의지름](ㄷ)로 발음된다. '띄우려고'의 '띄'는 자음인 '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기 때문에 [ㅣ]로 발음이 된다. 따라서 '띄우려고'는 [떠우려고](ㄷ)로 발음된다.

6 한글

부록 120쪽

기출로 끝내기

01 ②

02 ⑤

03 ③

04 ③

01 '훈민정음언해'에는 세종 대왕이 당대의 백성들이 한자를 알지 못해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안타까워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창제 과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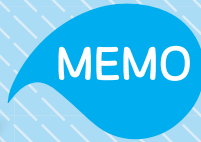
오답 풀이 ④ '어린', '놈', '어엿비' 등 오늘날과는 의미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

⑤ 제목을 통해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으며, 한글의 창제 당시의 이름이 '훈민정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02 한글 자음 기본자의 창제 원리는 상형의 원리로, 'ㅇ'은 발음할 때 동그랗게 열리는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03 한글은 음소를 글자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자판을 누르는 동시에 글자가 바로 입력된다. 그래서 발음을 알파벳으로 옮긴 후 해당 단어를 찾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04 한글 모음은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되고, 소리 나지 않는 글자가 거의 없다. 한글은 이와 같은 문자와 소리의 일치성으로 인해 정보화 시대에도 매우 유리하다.



A large whit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